

안산톡톡을 새롭게 전하기 위해 '보이스아이'가 도입되었습니다. 우측 상단 코드를 '보이스아이' 앱으로 스캔하면 시각장애인, 어르신, 다문화가정도 소식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민선 7기 2주년
힘차게 달려온 안산!
#시민 덕분에



03 특집
코로나19 대응 현장 스토리
방역 모범 도시 안산!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 중인
유평시장장이 들려주는 이야기.

04-11 시정성과
민선7기,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슬로건으로
시민 행복을 위해 달려온 안산시.
2년 동안 이룬 성과들을 짚어본다.

14-15 기획
건강한 여름나기
올해 여름, 강력한 불볕더위와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 수칙들을 살펴보자.

24-25 참여마당
내가 안산을 사랑하는 이유
생활안전지원금을 받은 외국인주민부터
코로나19 극복 일자리사업에 뛰어들
청년까지... 시민이 전하는 생생한 스토리!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이 자랑스러워 할 안산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변화를 열망하는 안산시민의 부름을 받고 쉽 없이 달려온 민선7기가 두 돌을 맞았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지는 쉽지만은 않았던 지난 2년을 헤쳐 나가는 큰 힘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생각지도 않은 영역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처럼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철저히 대응하고 있고, 더욱 단단해지고 있음을 세상 모두에 알렸습니다.
발 빠르게 시작한 선제 방역을 시작으로 자가격리자 특별관리, 전 시민 마스크 지급 등
방역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시의 자가격리 해제 전 진단검사, 외국인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배려 넘치는 자가격리자 관리 등
‘안산형 방역 혁신정책’은 세계를 선도하는 K방역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자의 참여, 많은 분의 기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준
시민 모두가 빚어낸 연대와 협력은 우리시 방역을 이끈 커다란 힘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안산시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구가 6년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는 기적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국내 제조업을 이끌었던 안산스마트허브도 스마트 선도 산단으로 지정돼
미래형 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임신부 100원 택시 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아우르는 복지제도는 전국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유럽평의회 주관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된 우리시는
아시아 최고의 다문화 포용도시이자, 다양성이 공존하고 화합하는
국제도시로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선도적인 정책을 철저히 준비해,
시민 여러분이 ‘살맛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 안산시장

윤 화 영



윤화섭 안산시장과 '톡Talk' 한다

"포스트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

민선7기 안산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는 역풍을 만난 후 더욱 단단하게 변화하고 있다. 시는 '자가격리 해제 전 진단검사', '외국인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공공청사 민원 접견실', '의전차량 해외 입국자 수송 지원' 등 시민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인 혁신 정책들을 펼쳤다. 또한 철저한 방역 체계를 선보이며 세계적인 방역 모범 도시로 떠올랐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 있는 윤화섭 안산시장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현장 이야기를 들려준다.



Q. 현재 '안산형 방역 혁신정책'으로는 무엇이 있나?

A. 안산시는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 중인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해제 전 진단검사'와 '영상통화를 활용한 자가격리자 특별관리' 등 안산만의 방역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자가격리자의 건강과 안전 수칙 등을 잘 유지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 영상 통화를 활용했고, 시 예산을 투입해 자가격리 해제 전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 농·특산품을 구호물품으로 지급하는 남다른 행정 정책도 폈다. 자가격리에 들어간 모든 분들이 자가격리 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방역을 펼치겠다.

Q. 안산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재난기본소득 전담팀이 구성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마련된 지원 정책들을 소개해 달라.

A. 재난기본소득 전담팀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덕분에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90% 이상의 지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 요양원이나 병원 등을 방문하며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직접 뵙고, 지원금을 전달하는 윈스톱 서비스도 마련돼 있다. 거동이 불편해 계단 이용조차 어려운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시 차원의 지원책으로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 복지 지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Q.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큰 이슈가 됐다. 정책 취지를 설명해 달라.

A. 시장으로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을 내뱉을 때다. 외국인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반대 의견도 많았지만, 외국인 주민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시민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우리 시가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외국인 주민들의 역할이 컸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내국인보다 타지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더 큰 두려움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 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이는 정부와 경기도 등이 외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내국인과 외국인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산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Q. 코로나19로 실제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은?

A. 소상공인 분들은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차원에서도 예산의 많은 부분을 상인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금을 업체당 최대 200만 원, 특례 보증 지원은 업체당 5천만 원, 코로나19 피해 강제 휴업보상비는 업체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수도 요금을 3개월 동안 최대 100% 감면해주고 있다.

Q.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안산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A. 안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도시가 코로나19 이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야 한다. '지역 경제 살리기'를 임기 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과 같은 경제 지원 대책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또다른 대비책으로 비대면 산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시는 첨단산업도시로서 이미 기반을 갖추고 있는데다, 첨단 연구개발(R&D) 단지 조성, 인공지능 개발, 온라인 원격 교육 등 관련 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에 대비한 안산만의 특화된 공공 의료 시설과 의료 산업 유치도 계획 중에 있다. 모든 것은 시민들 덕분이다. 아무리 시에서 정책을 내놓고, 격리하고, 검사하라고 권해도 시민 스스로 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시민들이 잘 지켜준 덕분에 안산시가 방역 모범 도시로 꼽힌 거라고 생각한다. 시민 스스로 우리 시의 품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방역은 물론,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지킵시다!

마스크 꼭 착용하고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세요!



01 일자리가 풍부한 '혁신경제도시'

전국 최초

청년친화형 선도 산업단지 선정



제조혁신창업타운 조감도



행복주택 조감도

안산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안산스마트허브)는 2018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청년친화형 선도 산업단지'로 선정됐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우수한 청년 인력을 산업단지로 끌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청년친화형 선도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건설, 제조혁신창업타운 조성 등의 다양한 재생·혁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안산스마트허브의 산업생태계 리모델링 추진에 있어 첫 관문을 열 제조혁신창업타운은 제조 혁신형 기업과 연구시설 등이 입주해 기존에 갖춰져 있는 인프라를 활용, 연계하며 제조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

다. 또 청년을 주축으로 한 창업관련 기술·정보를 다루는 지식산업센터를 만들어 청년 창업과 기업의 경영 활동도 지원한다.

산업생태계 리모델링의 경우 1970년대 조성된 구로공단이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로 탈바꿈한 사례처럼 안산스마트허브를 국내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끌 산업단지로 활성화할 방침이다. 서해선 원시역과 원곡역, 안산선 안산역이 이어지는 Y자 도로 일대를 'Y-밸리'로 만든다. 시는 제조혁신창업타운 조성과 함께 Y-밸리에 구조고도화 및 재생 사업이 추진되면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최초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 선정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는 2019년 2월 창원국가산업단지(스마트 선도 산업단지)와 함께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최종 선정되며 청년친화형 선도 산업단지에 이은 두 번째 쾌거를 이뤘다.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는 데이터와 자원을 연결, 공유하는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인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에 자유롭게 뛰어 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둔 미래형 산업단지다.

특히 데이터 기반 정보기술(IT)을 기존 산업단지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산업 창출은 물론 우수한 청년 인력을 끌어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주요 사업은 입주기업의 제조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조데이터센터 설립과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고급인력 양성, 창업허브 구축 등이다. 과거 제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반월·시화스마트산업단지의 노동환경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섬유소재연구원 안산분원 개소

안산시는 2020년 5월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안산분원의 문을 열어 관내 섬유 기업을 지원하고, 섬유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취임 이후, 지역 섬유 산업의 재도약을 목표로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의 안산분원 유치를 적극 추진해왔다.

그동안 섬유 관련 주요 인프라는 경기북부지역에 편중돼 있어 안산시와는 접근성이 떨어졌다. 이번 결과로 침체돼 있던 관내 섬유 산업의 기술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에코 융·복합 섬유 전문 연구기관이다. 상온에서 염색이 가능한 친환경 기술로 만든 표면 광택이 뛰어난 고감성의 니트 제조 기술과 고성능·고부가가치의 나노섬유, 메디컬섬유 등 융·복합 섬유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안산분원에서는 전문 인력 상주해 보유 중인 기술을 활용한 전문가 밀착 지원에 나선다. 또 다양해진 시장 요구에 맞춘 기술개발과 기업 핵심역량 강화 등 기업별 맞춤 지원도 할 계획이다. 시는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경기테크노파크 등과 미래 섬유 산업을 강화할 연구개발&비즈니스센터 구축 등도 추진한다.





국내 제1의 테크노밸리로 거듭날 안산, 4차 산업혁명 거점 도시로 도약하다

경기도 최초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제조업의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강소연구개발 특구는 2019년 6월 한양대 에리카캠퍼스를 중심으로 안산시 이언스밸리(ASV)와 시화멀티테크노밸리(시화MTV) 일원 1.73km²에 지정됐다.

강소연구개발 특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연구개발 특구 모델이다. 자생·자족이 가능한 지역 혁신플랫폼 구축을 위해 기존 연구개발 특구의 한계를 보완했다. 연구개발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집약형 산업으로 구조를 바꾼 것이 특징이다.

강소연구개발 특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신소재 등 미래유망산업을 특화분야로 다룬다. 오는 2024년까지 부품소재 분야에 ICT를 접목한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반월·시화스마트산업단지 등 지역 기업에 이전해 사업화할 계획이다. 입주 기업은 각종 연구개발·비즈니스(R&DB) 관련한 사업비 지원과 세제감면 혜택 등을 받는다.



캠퍼스 혁신파크 조감도

캠퍼스 혁신파크 지정 - 한양대 에리카

한양대 에리카캠퍼스는 2019년 8월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 사업'에 선정됐다. 교육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추진한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 사업은 대학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이다. 창업부터 기업 경영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대학의 혁신역량이 청년 일자리 창출, 혁신기업 육성 등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내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

지에는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등 첨단기술기업 입주 시설과 주거·편의·문화시설이 들어선다. 입주 기업은 재산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과 함께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안산시는 한양대 에리카캠퍼스를 중심으로 강소연구개발 특구에 이어 캠퍼스 혁신파크까지 추진하게 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부품소재에 특화된 거점 도시가 될 전망이다.

골목상권 마중물, 안산화폐 다운(多溫) 발행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안산화폐 '다운(多溫)'은 2019년 4월 발행과 동시에 시민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빠르게 정착했다. '소상공인, 골목경제까지 다 따뜻해지길 바란다'는 뜻의 다운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다.

다운을 쓰면 구매자는 평소에도 6~10%의 할인 혜택은 물론 현금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소상공인에게 실제 매출 증대 효과를 줄 수 있는 지류식 상품권을 이용하면 카드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도 있다. 지류식 상품권은 만 18세 이상이면 신분증 지참

후 관내 농협 어느 곳에서든 구입할 수 있다.

다운은 기록의 연속이다. 다운은 발행 한 달 만에 가맹점 8천400호를 돌파해 40억 원의 판매액을 기록했고, 발행 두 달 만에 업체 1만166곳이 참여해 가맹점 1만호를 달성하는 기록을 세웠다. 경기도는 물론 전국에서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맹점 1만호를 확보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이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는데 편의성을 높였다. 올해 다운의 발행액은 2천500억 원이다. 다운의 활용 가치를 고려하면 올해 3천억 원 이상 발행될 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운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이 기대된다.



02 배려와 공감, 모두가 살맛나는 '복지도시'

전국 최초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안산시는 수도권 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전국 최초로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을 추진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관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이 사업은 지난해 경

기도로부터 '좋은 실험'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경기도 시·군의 좋은 정책 사례로 언급되기도 했다.

시는 올해 1단계 지원 대상인 다자녀·가정·장애인·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지원하면서 단계적 시행에 들어갔다. 향후 재정 여건과 꾸준한 협의를 통해 관내 모든 대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는 4단계까지 규모를 점차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기존 '다자녀·가정 셋째 이상'에서 '다자녀·가정 모든 자녀'로 지원 대상을 늘렸다.

지원 대상 및 조건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학생, 다자녀 가정의 만 29세 이하 대학생이며, 대학생 본인과 가구원(본인 기준 조부모·외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 1인 이상이 함께 공고일과 지원일 현재 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 학교는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학교와 동일하고, 대학원이나 외국 소재 학교는 제외된다. 학습 의지가 있는 성실한 학생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맞도록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국가, 대학교 및 직장에서 받은 학자금 지원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 등록금의 절반을 1년에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이중지원을 막기 위해 한국장학재단과 협의해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시스템도 활용한다.

올해 5월 기준으로 관내 대학생 800여 명이 등록금 반값 지원을 신청했다. 시는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역량 있는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한 이번 교육 복지 사업이 시 미래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경기도 최초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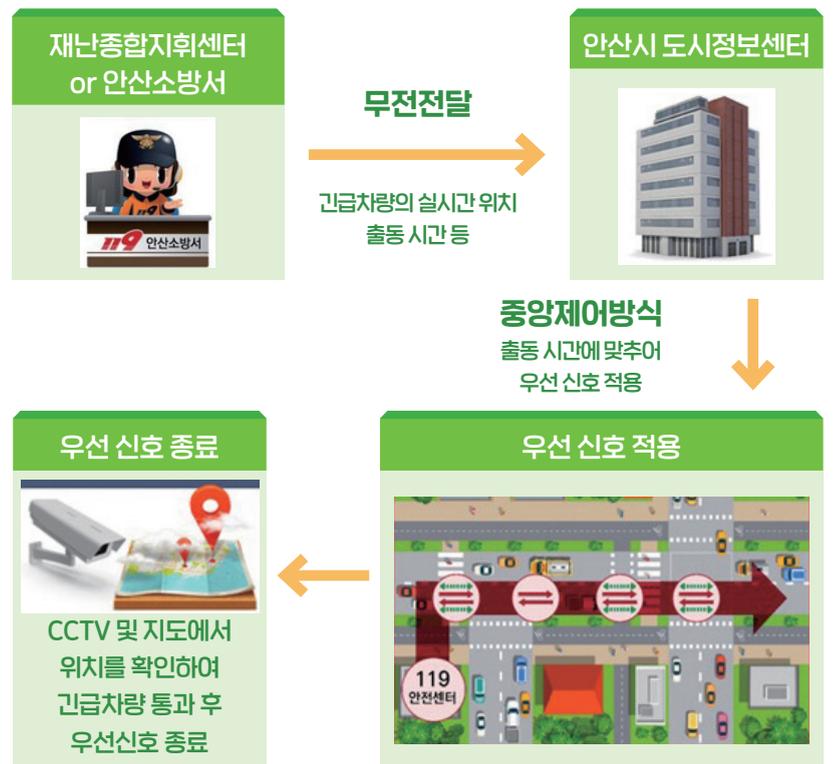
안산시가 경기도 최초로 시행 중인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효과를 특히 보고 있다. 시는 안산소방서 등과 함께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구축해 2019년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첨단교통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만든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소방서에서 출동한 119구급차 등 긴급 차량이 도착지까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시 교통정보센터가 소방서 긴급차량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무전 내용과 지도, CCTV를 확인하면서 예상 경로에 있는 교차로 신호를 녹색으로 연장해주는 방식이다. 1분 1초가 긴박한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출동하는 긴급 차량의 신속한 이동이 가능해졌다.

긴급 차량의 출동 시 이동 시간도 절반 이상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운영 전과 비교하면 1km당 평균 출동 시간 253.5초(4분23초)에서 올해 5월 기준 87.4초(1분46초)로 크게 줄었다.

현재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시 모든 도로 구간, 761개 교차로에서 시행하고 있다. 또 안산소방서, 사동119안전센터, 선부119안전센터, 월피119안전센터, 상록수 출동대 등 5개 기관의 긴급 차량 14대가 시스템을 적용해 운영에 나서고 있다.

시는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으로 관내 위급한 상황에 놓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아이부터 대학생, 외국인 주민, 청년·신혼부부까지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안산

전국 최초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운영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가 올해 3~5월 열린 ‘2020 시·군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고, 6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전국 단위 저출산 경진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임신부의 교통 편의를 돕기 위해 마련된 획기적인 정책이다.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기간 동안 한 달에 두 차례(왕복 2회·편도 4회) 관내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이용하는 모든 택시의 요금을 단돈 ‘100원’만 내면 된다.

윤택사업 안산시장의 공약사업인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시가 도입한 차별화된 저출생·인구감소 극복 시책으로, 지난해 동



안 4천280여 회가 운행될 정도로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올해 들어서는 4개월 동안 1천800여 회나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는 총 60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또한 임신부 뿐만 아니라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5세 미만의 유아, 국가유공자도 하모니콜 센터(1588-5410)를 통해 등록하면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전국 최초

외국인아동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민선7기 안산시가 2018년부터 추진한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은 전국에서도 모범 복지정책으로 꼽힌다. 안산시는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외국인 아동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아동 인권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특히 전국 최고의 다문화 도시라는 위상에 걸맞게 전국 최초로 외국인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안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를 토대로,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로 매달 22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관내 1천440명을 대상으로 38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급 방식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보호자가 결제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3개월 이상 등록하고 있는 만 0~5세의 외국인 아동이다. 시는 2018년 하반기 만 3~5세의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만 0~5세로 전 연령을 확대해 보육료 지급에 나서고 있다.

또 보육 아동이 만 5세가 될 때까지 영유아 우유급식비로 총 61만9천원의 예산을 책정해 지원한다.

내·외국인 차별 없이 모든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의 노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아시아 두번째

전국 최초

상호문화도시 지정

안산시는 올해 전국 최초이자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CoE) 주관 상호문화도시(Intercultural City)로 지정됐다. 민주주의와 인권수호를 위해 활동하는 유럽국제기구인 유럽평의회로부터 다양한 문화와 국적을 가진 이주민과 선주민(원주민) 간 문화 차이를 인정·존중하는 상호문화도시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는 다문화도시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됐다.

상호문화도시 지정으로 향후 상호문화 우수 정책을 개발할 때 전문 지원과 자문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상호문화·다문화 분야의 회원 도시들과 국제회의 등을 진행하며 국제 교류에도 앞장 설 수 있게 됐다. 올해 4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주민(105개국 8만7천338명)이 거주 중인 안산시는 ‘외국인아동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글로벌 청소년센터 운영’ 등 다양한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들을 선도하면서 내·외국인의 공존과 화합을 이끌었다.

이어 전 세계에서 137번째, 아시아에서 2번째 상호문화도시라는 기록도 남겼다. 2008년부터 유럽평의회와 유럽연합이 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해 지정하고 있는 상호문화도시는 전 세계 44개국 136개 도시다.

시는 다양한 가능성을 무기로 다시 한 번 도약하며, 아시아의 표준이 되는 상호문화도시 모범 사례로 성장을 앞두고 있다.



03 가치를 키워가는 수도권 최고의 '명품도시'

쾌적한 보금자리,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

안산시가 공공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제2의 도시 발전을 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5월 안산 장상지구(1만4천400호)와 신길2지구(5천600호)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 3기 신도시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전무했던 시 입장에서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층 등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은 꼭 필요한 일이었다. 이에 시는 우수한 교통망을 바탕으로 한 이번 택지 조성이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서울 도심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내 인구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상지구는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장하동, 수암동, 부곡동, 양상동 일대에 221만 m² 규모로 조성된다. 시 동부지역에 위치한 장상지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동안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던 곳이다. 인근에는 1천년 역사의 수암동이 위치하고 있으며, 시흥시와도 맞닿아 있다. 장상지구가 조성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장상지구에는 안산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이 들어선다. 서울 도심까지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는 등 제2의 신도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철 4호선 신길온천역 일대 75만m² 규모로 들어서는 신길2지구도 개발제한구역으로 그간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곳이다. 이곳 역시 택지 조성 과 역세권이 함께 형성되면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높아질 예정이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 청년희망타운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또 축구장 25개 면적보다 넓은 18만m² 규모의 공원이 함께 만들어져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도 제공한다.

시는 장상지구와 신길2지구 내 역세권 개발이 마무리되면 시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상업·업무 기반을 갖춘 자족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화랑유원지 리모델링... 300억원 투자

안산시가 올해 화랑유원지 명품화 리모델링 사업을 확정하며 정부로부터 국비 200여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민선7기 안산시 대표 결과물로 꼽히는 이번 사업으로 화랑유원지는 아픔을 기억하고 치유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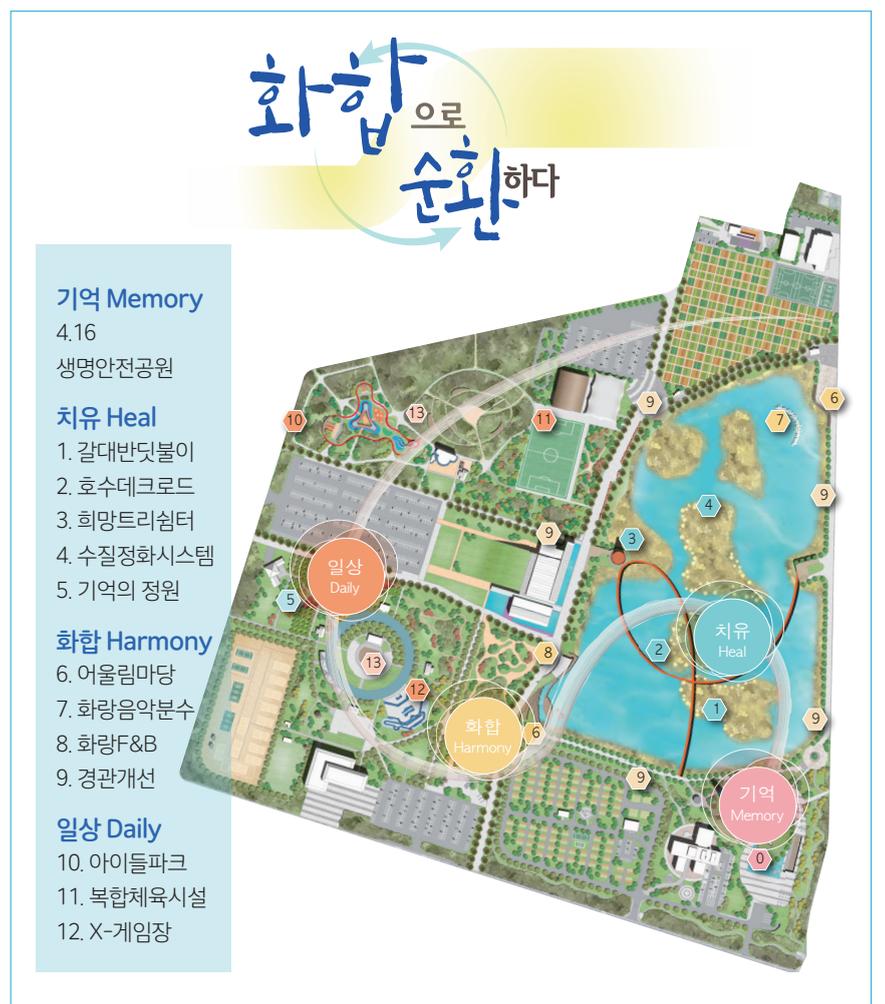
율화섭 안산시장은 화랑유원지 명품화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해양수산부 등 정부와 1년 가까이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과 화합의 의미를 담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끈질기게 요구한 끝에 국비 206억 원을 확보하는 전무후무한 성과를 남겼다. 4·16생명안전공원과 연계된 이번 사업은 당초 계획에 없었던 것으로 민선7기에 들어 온 시장의 의지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화합으로 순환하다’를 테마로 추진되는 화랑유원지 명품화 리모델링 사업은 ▲기억과 다짐, 약속의 공간(생명안전공원) ▲상처를 치유하고 나누는 공간 ▲화합을 꿈꾸는 공간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공간 등 4개 주제로 추진되며, 총 289억 원(국 206억원, 도 40억원, 시 43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은 ▲화랑저수지 내 갈대를 활용한 자연생태형 반딧불이 조명시설 조성 ▲기다림을 상징하는 노란 리본형 바닥투명 데크로드 설치 ▲치유를 나누는 희망트리센터 공간 조성 ▲수질 정화 시설 등이다.

이와 함께 화합을 위한 어울림마당, 음악분수, 아이들 공원, 복합 체육시설, X-게임장, 자전거 모기장 등도 함께 조성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화랑유원지 남서쪽에 지하1층, 지상3층 면적의 안산산업역사박물관과 국립안산도서관이 들어서며, 인근 초지역에는 KTX가 정착하는 등 초지역세권 개발과의 시너지 효과도 예상된다.

화랑유원지가 명품 리모델링 사업과 생명안전공원 조성을 통해 안산시민의 휴식처이자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5도(道) 6철(鐵)의 요충지 안산, 시 전역을 역세권으로 만들어 도시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신안산선 착공 &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오는 2024년 개통을 목표로 2019년 9월 착공식을 가졌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개통하면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전철(4호선)로 1시간 넘게 걸리던 이동시간이 신안산선 급행열차 이용 시 25분으로 단축되어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광명역, 구로디지털단지를 거쳐 서울 여의도까지 총 44.7km구간에서 운행된다. 지하 40m 이하 대심도에 건설하며, 지하 매설물이나 지상부에 영향 없이 평균시속 100km/h로, 최대 120km/h로 주파한다.

국내 최초로 전 구간을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시공과정을 3D 시뮬레이션으로 미리 보며 건축의 안정성을 여러 번 점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하며, 착공 후에도 AR과 VR정비시스템으로 유지·관리해 안전 문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초지역세권은 인천발 KTX와 수인선(수원~인천)이 지나는 광역·환승역세권으로, 경기 서남부지역과 서해안권의 교통 허브로서 큰 기대를 모은다. 서울과 충청권 등 주변 유동인구를 흡수하는 시의 새로운 명소가 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초지역세권(초지동 666-2 일원)에 복합 상업시설, 문화시설, 주거시설 등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3만3천750km²의 초지역세권 시유지를 개발, 문화·예술·상업 콘텐츠를 배치해 소비가 활발한 청년층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고품격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도시 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

안산시는 2018년부터 관내 곳곳에서 도시 재생 사업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 재생 사업은 2018년 월피동 광덕마을로 시작해 대부동 상동마을, 본오2동 보니마을까지 확대됐다. 이들 마을은 국토교통부의 도시 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도시 재생을 앞장서서 이끌고 있다.

월피동 광덕마을은 쇠퇴 가속화가 예상된 곳이었지만 서울예술대학교와의 상생 협력으로 청년층 유입을 꾀하면서 지역주민이 소통하는 마을로 변화했다. 광덕마을은 주민과 하나가 되는 '대학타운형 도시 재생'을 목표로 공영주차장 확보, 노후 공원 및 주거 환경 개선, 청년주택 지원, 창업지원센터 건립 등 2018년 8월 선정된 후,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대부도 상동마을은 '구전(口傳)마을 상동(上洞) 사라져가는 이야기를 찾아서'를 주제로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됐다. 대부도 상동마을은 지역 일대에 기초생활 인프라(생활SOS) 확충과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 사업, 공동체 회복 위한 가로형 커뮤니티 네트워크 조성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2019년 하반기 공모에 선정된 본오2동 보니마을은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공 임대상가 조성 등 주거 생활 인프라 정비 사업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본오2동만의 특화된 도시재생형 커뮤니티 케어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월피동, 사이동, 선부1동 등에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등 지역 활성화를 통해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한 시의 노력이 엿보인다.

시화호 송전철탑 지중화 추진

송전철탑이 사라진 아름다운 시화호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산시는 올해 2월 화성·시흥시, K-water와 함께 '시화호 송전철탑 지중화 등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4개 기관이 적극 협력해 시화호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 시화호 송전철탑 지중화 등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안산·화성·시흥시, K-water)은 시화호권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시화호 송전철탑 지중화를 위한 '시화호 송전철탑 운영으로 인한 환경영향 등 검토', '송전철탑 설치 구간 개선방안 및 타당성 검토',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마련 및 협력사업 추진' 등 5가지 사항에 협력한다.

시는 지난 2004년 시화호 송전철탑 준공 이후 송전철탑 지중화가 시화호 인접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만큼 이번 협약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오염의 대명사였던 시화호가 생명의 호수로 거듭나 다양한 해양 레저 문화 복합단지로 재탄생할 날이 머지않았다.



월피동, 본오2동, 대부동의 미래 모습이 궁금하다면 왼쪽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04 수소 산업 선두주자, 청정 '문화관광도시'

수소시범도시와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에서 지역발전의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다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대부도 신재생에너지타운 조감도



대송습지 & 람사르 습지 등록 협약서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 시화호 뱃길 복원

안산시는 올해 4월 해양수산부로부터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최종 선정되면서 향후 해양레저·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시작했다.

정부가 해양수산 분야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인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수도권에서도 해양 여건이 우수한 대부도 방아머리 일원에 국제 수준의 서비스 편의 시설을 갖춘 동북아 최고의 마리나항만을 만드는 복합해양관광 기반조성사업이다.

시가 지난 2015년 7월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이후 올해 최종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받았다.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는 1천2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부도 방아머리 일원 14만4천700㎡(수상 7만4천400㎡·육지 7만300㎡)에 오는 2024년까지 선박계류시설을 포함한 클럽하우스, 수리보관 시설, 호텔, 상업시설, 마리나 빌리지 등이 건립돼 해양레저·관광 시설을 갖춘 거점형 마리나항만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와 함께 시가 26년 만에 복원에 나선 시화호 뱃길은 해양레저·관광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시화호를 재조명해 수변 문화 공간의 활용 가치를 높인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화방조제 건립으로 끊어졌던 시화호 뱃길은 오는 2021년까지 총 21km가 복원된다. 구간은 사리포구가 있던 상록구 사동 호수공원 인근 안산천 하구에서 시작해 반달섬을 거쳐 시화호 방조제 안쪽 옛 방아머리 선착장까지 이어지는 옛 뱃길 항로다. 사리포구 재현 등 역사와 문화 자원 복원도 함께 이뤄진다.

시는 시화호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안산천 하구 반달섬, 대부도 옛 방아머리 선착장에 선착장과 부대시설 3개소 등을 조성하고, 관광객이 바다 체험을 할 수 있는 40인승 선박도 운항한다.

수소시범도시 공모사업 선정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 지정

안산시가 미래 친환경 수소시범도시로 뜨고 있다. 수소 인프라와 수전해 수소생산 기술 확보 등을 통해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사회와 수소 경제를 실현, 관내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목표다.

수소시범도시 사업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에 따라 추진돼 안산과 함께 전주·완산, 울산 등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2년까지 국·도비 180여억 원을 포함한 총 29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소 생산부터 저장, 이송, 활용까지 전 주기의 수소 생태계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 시화호조력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잉여전력을 활용해 수전해 수소 생산 실증 등을 진행한다. 연말까지 산업·주거 등 모든 분야에 수소 기술을 도입하는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2021년 1월 시설 공사 착공을 예정 중이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3만 명의 고용창출, 4조3천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 1조6천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소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소 사회를 이루는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안산 대부도 일대가 '신재생에너지 청정섬'으로 새롭게 조성되면서 에너지 허브로 성장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시화호조력발전소와 누에섬 풍력발전소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대부도는 최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로 지정됐다.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대부도와 시화멀티테크노밸리(시화MTV) 일부를 포함한 11만3천961㎡에는 오는 2023년까지 총 493억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조성', '에너지고부가가치 활성화', '에너지 관광산업 활성화' 등 3대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세부 사업으로는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시화 MTV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현장형 연료전지 설치사업·대부도 분산그리드 구축(신재생에너지 시설조성) ▲신재생에너지마을 조성·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스마트팜 건립·주민 참여형 태양광발전소 운영(에너지 고부가가치 활성화) ▲에너지 관광 명소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간 조성·신재생에너지 체험투어 운영 및 청소년 에너지 페스티벌 개최(에너지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등이다. 천혜의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청정섬의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수도권 최대 신재생에너지 생산 허브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 최초 대부도 갯벌 '람사르 습지' 선정

안산시 대부도 갯벌은 2018년 10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13차 람사르 협약 총회'에서 경기도 최초 '람사르 습지'로 공식 등록됐다. '람사르 협약(Ramsar Convention)'은 습지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1971년 이란 람사르에서 18개국 대표자들이 모여 체결한 국제습지보호조약이다. 우리나라는 1998년 7월 101번째로 가입했다.

협약을 통해 희귀하거나 독특한 습지 유형을 포함한 지역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선정한다.

수도권에 위치한 대부도 갯벌은 수많은 개발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연 상태 그대로의 다양한 염생 식물 군락지와 멸종 위기 야생동물, 보호대상 해양생물 등 104종의 대형 저서동물(底棲動物·해저의 저질에 서식하는 동물)이 서식해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한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물새 5종(노랑부리백로·저어새·알락꼬리마도요·황조롱이·검은머리물떼새)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바닷새들의 이동 경로이자 취식지로서 생태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05 따뜻한 공동체로 발전하는 '시민참여도시'

청년이 꿈꾸는 미래가 현실로 이뤄진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으로 희망을 만드는 안산

청년커뮤니티 공간 '상상대로' 운영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이하 상상대로)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동안 청년 창업지원 등 특정 목적을 가진 소규모 공간들이 있었지만 모든 청년이 조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 안산 시 제1호 청년공간인 상상대로는 ‘안산청년들이 말하는 대로, 상상한대로!’를 비전으로, 청년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유일한 곳이다.

단원구 와동에 위치한 상상대로는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475.3㎡ 규모로 구 시립와동영아어린이집을 리모델링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1층 카페와 책방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2층에는 소모임 활동이 가능한 세미나실

과 대회의실, 강당 등이 자리하고 있다. 지하에 마련된 연습실에서는 댄스와 뮤지컬, 연극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상상대로는 학생부터 직장인, 휴학생, 취업준비생, 육아휴직 중인 청년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단순히 공간 이용이 아니라 역량 개발이 가능한 강의와 프로그램들도 만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년이 직접 기획자가 되어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취업, 주거 등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사회 문제들을 소통하면서 지역 청년 정책 발굴에도 힘쓸 예정이다.

현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황 안정 시까지 공간 개방 및 프로그램 진행을 연기하고 있다.



전국 최초

청년창업 공간 'Station-G' 개소



청년 창업을 돕는 'Station-G'는 경기도와 안산시가 운영하는 청년큐브와 함께 대표적인 청년창업 공간이다. Station-G는 옛 수인선이 지나던 전철 4호선 고잔역 교량 하부 공간에 이동식 모듈형 건축물을 세워 2019년 7월 문을 열었다. 국내 최초로 유희부지로 방치되던 철도 교량 하부 공간을 청년창업 공간으로 탈바꿈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Station-G는 청년 창업자의 꿈을 실현해 주는 공간이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초기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 공간을 제공한다. 3D프린터, 레이저커터 등 각종 장비와 공구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제품 제작소와 북카페, 회의실, 창업 공간(14개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임대료, 관리비 등 없이 최초 1년 간 창업 공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장평가를 거쳐 최대 1년까지 입주 연장이 가능하다.

시는 Station-G에 입주한 창업팀들이 자유롭게 창업 활동에 뛰어들 수 있도록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 성공적인 사업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복합청년몰로 재탄생할 전통시장 다농마트&신안코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복합청년몰 지원 사업'에 안산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사업에 선정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통시장 다농마트는 올해 6월 복합청년몰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오는 2021년까지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복합청년몰로 새롭게 탈바꿈할 예정이다. 상록구 월피동에 위치한 다농마트는 1992년 12월 문을 연 뒤 현재까지 의류점과 다양한 공산품 판매점, 커피·제과점 등 390여 개의 점포가 입주해 있다. 과거 최대의 상권을 형성하기도 했지만 대형마트 입점과 온인 판매 활성화,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상가 3~4층 일부가 공실로 남았다.

시는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2021년까지 다농마트 내 공실에 점포 30개를 입점하는 등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주요 계획으로는 ▲문화체험을 겸한 판매시설 조성 ▲휴게 공간 조성 ▲소비활동

과 즐길 거리가 어우러진 콘텐츠 개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이다. 특히 관내 대학과 문화단체, 청년 창업을 위해 시에서 운영 중인 청년큐브 등과 연계해 창업 보육형 청년몰을 만드는 것에 집중할 계획이다.

상록구 본오동에 위치한 신안코아 전통시장은 지난해 복합청년몰 지원 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02년 조성된 신안코아 역시 경기침체 등으로 기존 상권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년간 지하층의 절반 이상이 공실로 남아 있었다. 현재 유희 점포에 대한 리모델링과 공실 대상으로 음식 공방 등 총 30개의 청년 점포와 청년창업인큐베이터, 주민편의시설 등이 입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복합청년몰에 입점한 청년 상인은 임차료 면제와 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우선해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부터 경력단절 여성, 시니어 등 안산 시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2년 동안 힘차게 달려온 안산!

GO_ANSAN

2019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물고기를 잡으려면 생각하라' 출판기념회
 2019.3.7(목) 크리스탈 볼룸

♡ 좋아요 1,580개

GO_ANSAN 2019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대상
 #TV조선·조선일보 #지자체 상생경영부문 리더십 인정받아...
 #젊음과 혁신으로 성장하는 사람중심 공유도시'

AnSan_love

2019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
 선정 및 출품 기념회
 2019년 4월 호텔 그랜드 볼룸

♡ 좋아요 852개

AnSan_love 2019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 대상
 #중앙일보 #혁신경영부문, 안산형 복지사업·스마트시티 등 시정 경영 인정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TalkTalk_Ansan

2019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 좋아요 793개

TalkTalk_Ansan 2019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우수사례 발굴
 #‘공동체 회복사업’ 시민이 주인이 돼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도시

Roki S2 Dani

2019 대한민국 일자리정책 대상(전국1위)

♡ 좋아요 1,456개

Roki S2 Dani 2019 대한민국 일자리정책 대상(전국1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정책 최우수기관 선정
 #청년기업과 미래 일자리를 함께 만들다 #청년큐브 초지캠프

‘각종 재난 사전대비 철저, 안전도시로 거듭나는 안산’

2018 지역안전도 진단 1등급 - 행정안전부
 2018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종합평가 최우수 - 여성가족부
 2018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실무사례협의회 우수 - 여성가족부
 2018~2019 겨울철 도로제설 평가 우수기관 선정 - 경기도
 2019 국가안전대진단 평가 우수기관 선정 - 행정안전부
 2019 시군 도로정비평가 우수기관 선정 - 경기도
 2019 경기도 자연재난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 경기도
 2020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 행정안전부

‘깨끗한 안산, 에너지 자립도시를 위한 한걸음’

2018 하수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등급 - 행정안전부
 2018 자원회수시설 효율화 기여 표창 - 감사원
 2018 경관행정 우수사례 선정 - 국토교통부
 2018 수도사업 운영관리실태 최우수 선정 - 환경부
 2018 개발부담금 업무 유공 표창 - 국토교통부
 2018 유용 생활폐자원 회수 우수도시 선정 - 경기도
 2019 상수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등급 - 행정안전부
 2019 대한민국 솔라리그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우수 지자체 선정 - 환경부
 2019 한국에너지대상(신재생에너지) 대통령 표창 - 산업통상자원부

자랑스러운 결실 모두 시민 여러분 덕입니다

Happylife_inANSAN

2020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KOREA MASTER BRAND AWARDS 2020

좋아요 951개

Happylife_inANSAN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동아닷컴·iMBC·환경닷컴 #다문화포용도시 1번지로 자리매김
#“차별없는 복지와 선도 정책으로 더 큰 안산시 만들겠다”

come_on_Daebudo

2020 (수) 15:00

좋아요 793개

come_on_Daebudo 2019-2020 대한민국 환경대상 수상
#대한민국환경대상위원회 #환경실천분야 및 환경교육 부문 최고 권위
#자원과 에너지가 선순환 하는 청정도시 안산

LOVEIT_ANSAN

5(수) 15:00 안산시 단원청소년수련관

좋아요 2,544개

LOVEIT_ANSAN 2018-2019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
#한국인터넷소통협회 #시민들이 공감하는 SNS콘텐츠 제작
#“생생한 정보 실시간 제공하며 시민들과 적극 소통”

Wonderful.Ansan

안산시 생활안전지원금 사용처

좋아요 753개

Wonderful.Ansan 지방재정 신속집행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억 원 확보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공지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안산’

- 2018 주거복지 유공 장관 표창 - 국토교통부
- 2018 청소년상담복지사업 장관 표창 - 여성가족부
- 2018 지역복지사업(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우수상 - 보건복지부
- 2018 부모모니터링 우수 운영사례 선정 - 한국교육진흥원
- 2018 보육사업 유공 정부 포상 - 행정안전부
- 2019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장관 표창 - 보건복지부
- 2019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 보건복지부
- 2020 시군 저출산 우수시책 선정 - 경기도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안산’

- 2018 결핵환자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 질병관리본부
- 2018~2019 치매극복의 날 유공기관 표창 - 보건복지부
- 2018 음주폐해 예방의 날 우수기관 선정 - 보건복지부
- 2018 지역사회 금연사업 성과대회 장관 표창 - 보건복지부
- 2018 치매정책사업 우수 치매안심센터 선정 - 보건복지부
- 2019 국가예방접종사업 우수기관 선정 - 질병관리본부
- 2019 세계 금연의 날 유공 장관 표창 - 보건복지부
- 2019 비만예방관리 분야 우수기관 선정 - 보건복지부
- 2019 지역암관리사업 평가 우수상 - 경기지역암센터
- 2019 치매관리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 경기도

여름철 자연 재난에도 끄떡없는 안산시 '2020년 여름철 폭염 대응 종합 대책' 발표

폭염 재난 안전도시, 안산시가 올 여름 예고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고 폭염 대응 체계에 들어갔다. 특히 국민생활밀착형 폭염 대책으로 마련한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 집중 관리를 위한 '폭염 재난도우미', '무더위 쉼터 확대 설치'와 옥외 활동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무더위 휴식시간제'가 눈길을 끈다. 여기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불가피한 이번 여름, 시가 추진하는 국민생활밀착형 폭염 대책부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 방지 대책까지 살살이 살펴보자.



"이번여름, 1m이상거리유지 필수!" 안산시가 마련한 폭염 피해 방지 대책은?

지난 달 방역당국은 '1m'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기본수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 최근 연구 논문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사람 간 물리적 거리를 1m 유지하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8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올 여름 만만찮은 폭염도 예상되면서 1m 이상 거리 유지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 됐다.

안산시는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한 오는 9월말까지 폭염 대응 합동 전담팀을 꾸려 폭염 대응 체계에 들어갔다.

먼저 무더위 쉼터와 생생그늘터(그늘막)의 운영을 확대해 한낮의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쉼터와 그늘막 등을 시내 곳곳에 마련했다. 무더위 쉼터는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행정복지센터와 경로당, 체육관 등 일상생활 공간 주변 장소들을 활용한다. 올해는 금융기관 17곳에 무더위 쉼터가 추가로 문을 연다. 총 313개소의 무더위 쉼터가 시민 곁을 시원하게 해줄 예정이다. 내리쬐는 땀병 속에서 잠시 땀을 식힐 수 있는 생생그늘터도 올해 104개소가 추가로 설치된다.

이와 함께 600여 명의 폭염 재난도우미가 지역 내 폭염 취약계층을 돕는다. 재난도우미는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 관리하는 보호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무더위 쉼터에서 건강관리와 폭염에 대비한 행동요령 교육 등을 펼친다.

시는 여름철 바깥 활동을 해야 하는 옥외 활동자를 위한 현장 무더위 휴식시간제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무더위 휴식시간제는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등 폭염 특보가 발효될 때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야외활동과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농·축산·어업종사자, 건설업 노동자,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이다. 특히 건설 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 방지 대책도 필수다. 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 무더위 쉼터 운영의 임시 휴관을 권고하고, 필요하면 이를 개방된 장소나 대형 체육관 등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어 폭염 취약계층을 돕는 재난도우미의 활동도 비대면·비접촉 방식으로 바뀐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면서 시설 이용수칙 등의 감염 방지 대책을 꼼꼼히 확인하자.



불볕더위 속 온열 질환에 주의하자!

지난해 7~8월 안산지역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10회, 폭염경보는 8회 등 폭염 특보 발효 일수는 18일에 이른다. 기상청은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를 내린다. 올 여름 폭염 특보 발효 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온열 질환에도 신속하게 대비해야 한다.

온열 질환	증상	응급조치
열발진	다발성 붉은 뾰루지 또는 작은 물집 : 목, 가슴, 사타구니, 팔꿈치 안쪽	· 시원하고 건조한 장소로 이동 후 작은 물집이 난 부위는 건조하게 유지하기
열성부종	발이나 발목의 부종	· 시원한 장소에서 발을 높인 자세로 휴식하기
열실신	실신(일시적 의식소실)과 어지럼증	· 시원한 장소로 옮겨 평평한 곳에 눕히기 · 물이나 이온음료 천천히 마시기
열경련	근육경련 (팔, 다리, 복부, 손가락)	· 서늘한 곳에서 휴식하기(경련이 멈추었다고 해서 바로 다시 일을 시작하면 안됨) · 물 1ℓ에 소금 1티스푼 정도 섞어 천천히 마시기 ·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마사지하기
열탈진	· 땀을 많이 흘림 ·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 창백함, 근육경련 · 오심 또는 구토, 혼미, 어지럼증 · 체온은 크게 상승하지 않음	· 시원한 곳 또는 에어컨 있는 장소에서 휴식하기 · 물이나 이온음료 천천히 마시기 · 시원한 물로 샤워하기 · 증상이 한 시간 이상 되거나 회복되지 않을 경우는 의료기관 방문하기 (수액을 통해 수분과 염분을 보충하기)
열사병	· 40°C가 넘는 체온 · 땀이 나지 않아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 중추신경 기능장애 (혼수상태, 헛소리)	· 119에 즉시 신고하고 기다리는 동안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긴 후 환자의 옷을 시원한 물로 적시고 몸을 선풍기 등으로 바람을 불어줌 ※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음료를 마시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니 절대 금지!

안산시 공원 내 수경시설 운영시간표

※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운영 재개할 예정입니다

공원명	시설	위치	운영일자	운영일	운영(가동)시간
노적봉공원	도섭지	성포동 산39-1	6. 3.~8. 31.	주말, 공휴일 ※ 8.1.~8.20. :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
	폭포, 분수		4. 1.~10. 31.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매시 45분간 가동)
반월공원	도섭지	본오동 723	6. 3.~8. 31.	주말, 공휴일 ※ 8.1.~8.20. : 매일 (월요일 휴장)	오전 11시~오후 5시 (매시 30분간 가동)
성호공원	도섭지	이동 615 (안산식물원 뒤)	6. 3.~8. 31.	주말, 공휴일 ※ 8.1.~8.20. :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 (매시 50분간 가동)
	바닥분수		6. 3.~8. 31.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 (매시 20분간 가동)
호수공원	도섭지	사동 1509	6. 3.~8. 31.	주말, 공휴일 ※ 8.1.~8.20. : 매일 (월요일 휴장)	오후 1시~오후 3시
	분수시설 (연못내)		5. 5.~8. 31.	매일 ※월요일 휴장	오전 10시~오후 12시/ 오후 1시~오후 3시 오후 4시~오후 7시
둔배미공원	바닥분수	초지동 723-1	6.10. ~ 8. 31.	주말, 공휴일 ※ 8.1.~8.20. : 매일 (월요일 휴장)	오전 10시~오후 5시 (매시 20분간 가동)
원고잔공원	바닥분수	고잔동 산 87-3	6. 3.~ 8. 31.	주말, 공휴일 ※ 8.1.~8.20. : 매일 (월요일 휴장)	오전 10시~오후 5시 (매시 20분간 가동)

※ 도섭지(渡涉池) : 깊이가 0.5m쯤 되는 일정한 공간 내에서 물이 아래로 흘러가도록 인공적으로 만든 물놀이터



올 여름, 잦은 집중호우와 초강력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자! '2020년 장마철 안전관리'는 어떻게?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 기간은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다. 이미 제주도를 시작으로 장마 전선이 북상하고 있다. 장마철 집중호우와 강풍, 벼락, 태풍 등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며 벌써부터 걱정을 앞서게 한다. 안산시도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각지대 등 현장 파악에 나서며 재난 대비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 올해 장마 기간 꼭 지켜야 하는 안전 수칙은 무엇인지, 불쾌함은 줄이고 쾌적함은 높이는 장마철 팁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자.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나기 방법들을 소개한다.



"장맛비 내린다!" 가정에서 할 일은?

각 가정에서는 하수구와 배수구의 점검을 꼭 해야 한다. 빗물이 잘 빠지는지 확인해야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빗물이 전기시설로 스며들면 화재나 감전 사고의 위험도 높아진다. 이 때문에 전선의 피복 상태를 점검하는 일도 중요하다. 점검 후 상태가 좋지 않은 전선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 집 안팎의 전기 수리도 장마철에는 하지 않아야 한다. 단독주택에서는 지붕의 방수 상태와 담장 및 축대를 점검해야 한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면 바람에 흔들리거나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이 있는지 꼭 확인한 뒤 치우거나 고정해야 한다.

장마철 필수품인 우산은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즉시 현관에서부터 물기를 제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말려야 한다. 또 햇볕이 들 때 우산을 펴 말리면서 혹시 모를 세균을 없애야 한다. 젖은 신발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말렸다가 어느 정도 습기가 제거되면 신문지를 구겨서 넣어두도록 하자. 옷 사이사이에도 신문지를 넣어두면 습기가 사라져 옷에 곰팡이가 피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굵은 소금을 큰 그릇에 담아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면 천연 제습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집안 곳곳에 숯을 놓아두면 탈취 효과에도 좋다.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는 누전 사고가 일어나기 쉬우니 누전차단기 작동상태를 살펴보아야 한다. 에어컨이 있을 경우 가끔 제습 기능을 작동하고 보일러도 일정 시간 동안 가동하면서 집안의 습기를 제거하자.

장마철에는 음식을 잘못 먹으면 식중독에 걸리기 쉽다. 대기 중 습도가 높아 세균 증식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식은 꼭 익혀 먹어야 하며 칼과 도마를 포함한 주방 도구와 식기는 설거지 후 완전히 건조시킨 뒤 사용해야 한다. 음식은 상온에 두지 말고 냉장고에 보관하는데 뜨거운 음식은 냉동된 아이스 팩 위에 올려두면 빨리 식힐 수 있다.



집밖에서도 쏟아지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자!

집중호우 속에서 보행자는 거리를 다닐 때 감전위험이 있는 신호등 주변을 피하고, 미끄러질 수 있는 맨홀 뚜껑을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 근처는 지나가지 않고, 물에 잠긴 도로도 피해야 한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경우 건물 안으로 대피한다.

운전자는 자신의 운전 습관을 점검하며 빗길 운전의 주의해야 한다. 안전과 직결된 차량 안전 관리에도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한다. 장마철 주행 시 도로가 젖어 시야 확보가 어렵고 차량 제동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우선 비오는 날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차량의 와이퍼 상태를 확인한 뒤 유리창이 제대로 닦이지 않으면 반드시 교체한다. 장마철 노면에 고인 빗물로 차가 미끄러지는 수막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타이어 마모 상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또 사이드 미러, 비상등, 안개등도 점검한다. 빗물이 고인 도로에서는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도 꼭 확보해야 한다.

권소희 명예기자_estateksh@naver.com

태풍이 와도 걱정 No! 든든한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이란?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보험.

대상재해	가입대상	정부지원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 상가·공장(소상공인)	총 보험료의 52.5~92%

보험료

주택	연간보험료		보험금
	총액	정부지원	
	61,200원	32,100원	7,200만원
	자부담	29,100원	
상가	연간보험료		
	총액	정부지원	
	127,500원	75,300원	
	자부담	52,200원	1억원
온실	연간보험료		보험금
	총액	정부지원	
	347,900원	182,600원	
	자부담	165,300원	964만원

가입문의

- 안산시 안전사회지원과(481-2724)
- 풍수해보험 판매 보험사(02-2100-5103~7)
 - DB손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 NH농협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여름철 비상연락망

기관	전화번호	기관	전화번호	기관	전화번호	기관	전화번호
기상청	국번없이 131	일동	481-5811	월피동	481-5638	백운동	481-6706
안산소방서 (119구조대)	470-7451~5	이동	481-5521	성포동	481-5450	신길동	481-6651
		사동	481-5752	반월동	481-5818	초지동	481-6737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481-2037	사이동	481-5503	안산동	481-5511	선부1동	481-6738
		해양동	481-5084	와동	481-6071	선부2동	481-6909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본오1동	481-5525	고잔동	481-6329	선부3동	481-6740
		본오2동	481-5505	중앙동	481-6501	대부동	481-6947
		본오3동	481-5727	호수동	481-6741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481-2645	부곡동	481-5507	원곡동	481-6704		
경기도	8008-8444						

감골도서관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복술랭존’부터 ‘동아리실’, ‘VOD서비스’, ‘노트북실’ 까지

감골도서관이 환경개선공사를 거쳐 시민을 위한 개방형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시는 올해 초 공공도서관 특성화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비 2억3천여만 원을 투입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임시 휴관에 들어간 감골도서관을 리모델링했다.

감골도서관 건물 2~3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환경개선공사는 세 구역으로 나뉜다. 도서관 2층 휴게 공간은 확장 공사를 통해 북큐레이션 특화 공간인 ‘복술랭존’으로 새롭게 꾸몄다. 방문객의 자유로운 휴식과 독서를 위한 곳으로 탈바꿈한 이곳에서는 감골도서관 전문 북큐레이터가 선정한 테마별 도서 감상은 물론, 키오스크*를 이용한 디지털 신문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다.

시민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은 돕는 동아리실도 3개나 마련됐다. 동아리실은 최대 12명 인원까지 수용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중학생 이상의 안산시민으로 구성된 5인 이상 독서·취미 동아리인 경우에만 방문 접수(주 1회, 3시간 이내)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월요일~목요일)과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도서관 3층에 위치한 청소년 열람실은 공간을 분리해 디지털 자료실과 노트북실로 새롭게 조성했다. 디지털 자료실에서는 PC, 프린트 등의 기기 이용과 함께 별도로 마련된 개인 DVD 시청 공간에서 주문형 영화 감상 VOD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인터넷 좌석을 이용할 경우 매달 업데이트되는 최신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다채널 서비스를 갖춰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손쉽게 즐길 수 있다. 노트북실에는 개방형 책상을 새로 설치했다.

이밖에도 냉·난방시스템 교체, 전기·통신 등 노후시

설 보강공사, 환기시스템 추가 설치 등 다양한 환경개선공사를 진행해 방문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도서관 문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감골도서관은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수도권 지역에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지난 5월 30일부터 상황 안정 시까지 도서관 운영을 중단했다. 도서 대출의 경우 비대면 안심 예약대출서비스를 시행 중으로, 인터넷으로 도서를 예약하고 안내 문자를 받으면 다음 날 도서관을 방문해 소독한 도서를 대출받을 수 있다.

*키오스크(Kiosk) :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전달 시스템인 무인단말기

문의 : 감골도서관(031-481-2665)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daum.net



복술랭존



동아리실



노트북실

‘어린이집 운영은 투명하게, 부모의 신뢰는 더 높이지!’

2020년 부모 모니터링단 사업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어린이집 사건 사고들로 어린이를 둔 부모들은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늘 안고 있다. 성심껏 아이를 돌보고 있는 대부분의 어린이집도 관련 사고가 발생할 때면 안타까우면서도 입장이 난처해질 수밖에 없다.

안산시는 어린이집과 부모가 서로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2020년 부모 모니터링단 사업’ 추진에 나섰다.

부모 모니터링단은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 2에 근거해 부모와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급식 위생과 건강, 안전관리 등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모니터링 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주도의 지도점검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점검으로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에 부모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부모의 신뢰도를 함께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은 모니터링단의 전문 컨설팅을 받으면서 보육 서비스 품질도 높일 수 있다. 시는 지난해 관내 전체 어린이집 501개소 중 245개소(48.9%)를 대상으로 부모 모니터링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 이상의 어린이집에서 ‘부모 모니터링단이 어린이집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 결과를 밝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막기 위해 보육전문가 대신 어린이집에 자녀를 둔 부모 1~2명과 원장인 보육교직원이 함께 부모모니터링 지표를 중심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안전·급식·위생관리 등 4개 영역에 15개 지표를 평가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자체 모니터링 단원은 마스크와 손 세정제, 일회용 장갑 등 위생품을 철저히 준비한 뒤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모니터링 전 발열 또는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시·군·구 담당공무원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모니터링 업무에서 배제된다.

문의 : 안산시 보육정책과(031-481-3948)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비 68억원 ‘획기적 절감’

안산시가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대행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원가산정금액보다 6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획기적 성과를 거뒀다.

하루 53만7천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루 250톤의 슬러지*를 소각하는 하수슬러지소각시설은 2017년 4월부터 3년간 시설운영 관리대행을 위탁, 올해 4월 재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시는 치밀한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관리대행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사전에 준비하며 3차례에 걸친 재계약 가격협상을 실시, 당초 3년간 원가산정금액 584억원에서 11.6%를 절감한 516억원에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그간 시가 하수슬러지 발생량을 체계적으로 감축해온 데다 소각로 운영 효율화로 처리비용을 줄여온 영향이 컸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절감한 예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되는 등 필요한 분야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슬러지: 하수 처리나 정수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

문의 : 안산시 하수과(031-481-258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답답한 일상, 안산시민의 마음을 방역합니다.

‘치유 공간 이웃’의 마음 치유 프로젝트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맘 프로젝트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권위적이거나 수직적이지 않고 치유를 경험한 시민이 또 다른 시민을 치유하는 소박한 치유 릴레이다. 개인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치유의 힘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한 맘 프로젝트는 치유의 힘을 경험한 활동가들이 안산에 모여 맘 프로젝트 1기를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17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안산에서 맘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한 곳은 ‘치유 공간 이웃’이다. 단원구 와동에 위치하고 있는 치유 공간 이웃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유가족 위해 만들어진 공간으로, 생존자와 유가족을 위한 개인상담 등 아픔을 나누고 보듬는 치유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김지희 활동가는 “상처 입은 이웃 누구나 활동가가 되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 대부분 자신도 몰랐던 마음 속 상처들을 알게 되고 들여다보게 되면서 치유의 힘을 경

험한다”고 말했다.

6주 간 진행되는 맘 프로젝트가 끝나면 치유 공간 이웃의 또 다른 프로그램 ‘속마음 산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자는 ‘화자’가 되고, 활동가는 ‘공감자’가 되어 2인1조로 공원을 산책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는 일상 치유 프로그램이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숲속 산책과 음식 나눔 등을 통해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마음 치유 프로그램, 맘 프로젝트의 자세한 내용은 치유 공간 이웃에 전화(031-403-0416)로 문의하면 된다.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역사 탐방 전용 버스타고 우리 역사와 문화 만나러 ‘Go, 古(고고)’

안산문화원, 초등학생 대상 ‘안산 역사문화 탐방 아카데미’ 운영

안산문화원은 관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사회탐구 학습 자료와 교과서 내용을 연계한 현장체험 학습프로그램 ‘안산 역사문화 탐방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2012년부터 9년째 진행하고 있는 안산 역사문화 탐방 아카데미는 관내 어린이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역사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교과와 연계한 기획 프로그램이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무료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학급별로 제공한 역사 탐방 전용버스로 전문 강사와 함께 이동하면서 관내 박물관과 문화유적지 등을 답사한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의미 있는 장소를 방문하면서 관련 인물과 문화

유적지 등 안산의 역사를 한 눈에 보고 경험할 수 있다. 장소별로 만들어진 활동지와 교구를 활용해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흥미로운 수업들이 펼쳐진다. 이론 교육과 현장 답사가 함께 이뤄져 참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만족도가 매우 높다. 프로그램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한다.

답사 코스는 안산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안산 향토사박물관’을 필수 코스로 시작해 실학자 성호 이익의 업적과 생애를 배울 수 있는 ‘성호기념관’과 농촌계몽운동가 최용신을 기린 ‘최용신 기념관’ 등을 찾아간다. 또 안산읍성, 사세충렬문, 신길 선사유적공원 등 시 곳곳에 자리한 역사유적지를 선택해 방문하면서 골라가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특히 학급별로 관심 주제에 따라 A코스와 B코스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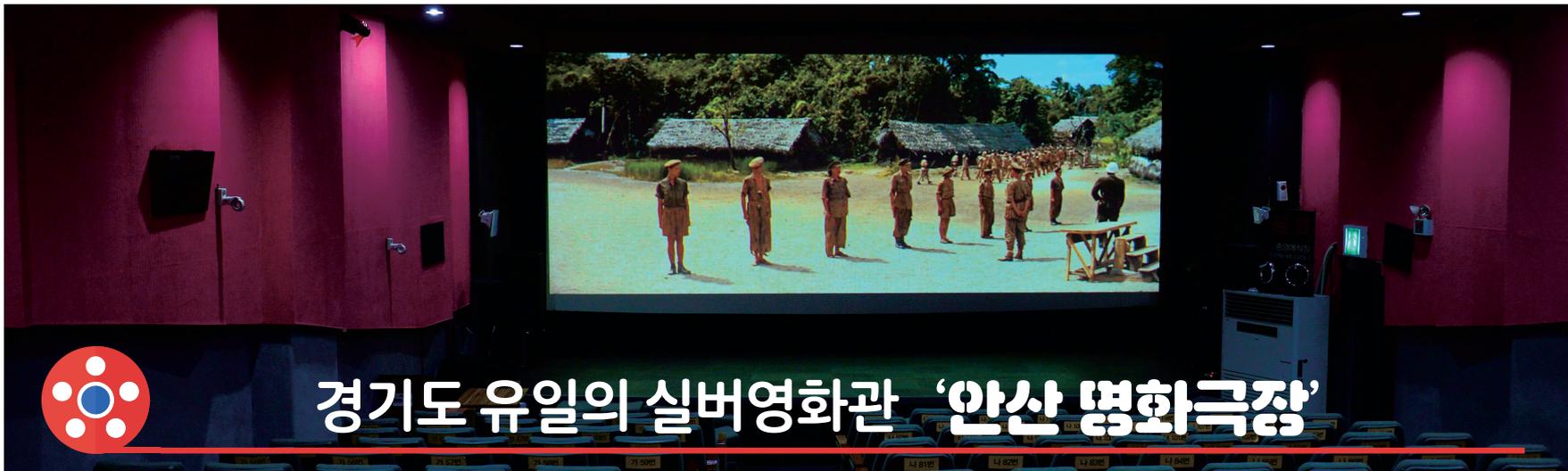
선택할 수 있다. A코스는 ‘안산의 문화유적’을, B코스는 ‘안산의 민속’을 각각 주제로 정하고 있다. A코스의 경우 1코스는 안산향토사박물관, 2코스는 성호기념관과 최용신 기념관, 3코스는 안산읍성, 사세충렬문, 신길 선사유적공원, 오정각·고송정, 별망성지 등으로 각각 구성됐다. 참가자는 이중 2~3곳을 골라 답사를 떠날 수 있다. B코스에서는 1코스 안산향토사박물관, 2코스 안산어촌민속박물관 등으로 이뤄졌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안산 역사문화 탐방 아카데미의 체험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

김선영 명예기자_rimmom@korea.com

- 신청대상** 관내 초등학교 3학년 단체
- 일 정** 9월~11월, 주 5회(월~금)
- 장 소** ① 안산향토사박물관 / 성호기념관
최용신기념관 / 신길선사유적공원
② 안산읍성 / 오정각·고송정 / 사세충렬문
별망성지 / 안산어촌민속박물관
↳ 코스별로 2~3곳 선택 가능
- 신청방법** 홈페이지(www.ansanculture.or.kr)
선착순 예약
- 문 의** 안산문화원(031-415-0041~2)





안산 중앙역 1번 출구를 나서면 보이는 동서코아 빌딩 지하 2층에는 시간이 멈춘 듯 특별한 곳이 있다. 관객을 추억과 행복의 시간으로 안내하는 경기도 유일의 실버영화관 '영화극장'이다. 옛날에 미처 보지 못했던, 또는 즐겁게 봤던 영화를 세월이 흘러 다시 한 번 감상할 수 있는 추억의 장소다.

2012년 12월 지금의 자리에 문을 연 영화극장은 국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 세워진 도내 유일의 실버영화관이자 사회적 기업이다. 특히 실버 세대의 영화·문화공연 관람 기회를 높이기 위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등 2013년 행정자치부와 경기도, 안산시 등으로부터 착한가격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2016년에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았고, 경기도 착한 기업상을 수상했다.

전철 4호선 중앙역 인근에 위치한 영화극장은 교통이 편리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하루 평균 120명에서 150명에 이르는 관람객이 방문했을 정도다. 이 중 타 지역에서 온 관람객 비율이 70%나 되는 등 도내 실버 세대의 문화 공간이자 명소로 떠올랐다. 실버영화관답게 실버 세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등 배려도 눈길을 끈다. 좌석마다 번호를 크게 써놓아 쉽게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했고, 영화 상영 시 글자가 잘 보이도록 자막을 크게 새로 입힌다.

영화극장은 실버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노래 교실과 관내 자원봉사자와 연계한 시니어 스마트폰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안산다문화지원센터와 연계해 다문화 영화를 상영하고 다문화 가요제를 개최하고 있다.

직원의 70%가 55세 이상인 영화극장은 실버세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 시니어클럽 생상품 판매, 장애인 사회적기업의 생상품 판

로지원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김현주 영화극장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2월 말부터 자진 휴관한 뒤 개관한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프로젝트 기획을 통해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이곳을 즐겨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1950~60년대 고전영화뿐만 아니라 1970~80년대 영화 상영은 물론, 남성 어르신을 위한 노래 교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화극장은 연중무휴로, 관람료는 55세 이상 관객과 시니어 동반 관객은 2천원, 다문화 가정 관객은 3천원, 일반 관객은 7천원 등이다. 영화극장은 현재 위생 관리와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방문객은 관객 출입 명부 작성 후 이용할 수 있다.

문의 : 영화극장(031-480-3827)
권소희 명예기자_estateksh@naver.com



'찾아가는 원데이클래스' 신청자 모집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올해 12월까지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10명 이상의 여성 모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원데이 클래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근로자복지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휴식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컬러 테라피', '아로마 테라피', '원예 테라피' 중에서 원하는 원데이 클래스를 신청하면 강사비를 1회 지원한다. 컬러 테라피에서는 컬러를 통해 자신의 강점과 보완점을 찾으며 타인과 소통하는 법을 배운다. 아로마 테라피에서는 '나만의 향수 만들기(15ml)', '바스 붐(입욕제)과 바스 솔트 만들기', '손 소독제와 곰돌이비누 만들기'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원예 테라피에서는 '식물을 이용한 생화플라워케이크', '바스켓미니식물정원', '토피어리 만들기'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진행한다. 원데이 클래스 신청은 희망일 기준으로 최소 3주 전에 전화로 가능하며, 수업은 2시간 동안 진행한다. 강사비를 제외한 재료비는 자부담이다.

문의 :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031-495-6844, 5844)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평생학습 동아리에 최대 100만원 지원

안산시는 오는 11월까지 '2020 안산시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 관내 학습 동아리 60개를 모집해 활동경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관내 평생학습 동아리를 발굴, 지원하면서 학습 동아리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고 학습공동체 문화의 지역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안산시 평생학습원에 등록돼 활동 중인 10명 이상의 성인 학습 동아리로 구성원의 80% 이상이 안산시민으로 구성돼 있어야 한다.

신청조건은 나눔과 공유 등 2개 부문을 실천할 수 있는 동아리로, 매달 2회 이상의 정기 모임을 통해 공동 학습 주제에 대한 심화학습 활동과 지역사회 축제, 재능기부 등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현재 시 평생학습원에 등록돼 활동 중인 학습 동아리는 341개다. 이번 지원 사업에 선정된 학습 동아리는 '동아리 역량강화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문의 : 안산시 평생학습과(031-481-3805)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시민기자가 간다!

마을을 대표하는 생생마을기자단, 초·중·고·대학생으로 이뤄진 학생기자단, 특색있는 글솜씨를 가진 SNS시민기자단이 전하는 안산시의 생생한 소식. 안산시 시민기자단은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써내려갑니다. 기사제목 좌측 QR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폰으로 기사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로수 정원 & 플랜트 박스 정원 마을 정원 이야기

가로수 나무 밑의 가로수 정원, 개인 팻말이 있는 플랜트 박스 정원을 보신적이 있나요? 상록구 일동에는 70여 개의 가로수 정원과 100여 개의 플랜트 박스 정원이 있습니다. 마을 정원 관리사가 가로수 정원이 가능한 도로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대상으로 분양자를 찾고 플랜트 정원은 관리할 수 있는 분을 모집해 정원을 만들어드립니다.

• 권성혜 생생마을기자



하천을 맑고 깨끗하게! EM 흙공을 만들어 던지다

EM 흙공은 황토에 EM(유용한 미생물) 활성액과 발효촉진제를 섞어 반죽한 후 발효시킨 공입니다. 하천 바닥에 퇴적된 오염물질 제거하기 위해 수질 개선 용도로 사용하며, 특히 하수 유입으로 오염된 도심하천의 악취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안산시 새마을회원들이 맑은 하천을 위해 매년 흙공 4천개를 만들어 안산천, 화정천, 신길천, 반월천에 던져 줍니다.

• 한숙희 생생마을기자



다양한 장미꽃이 활짝! 노적봉공원 '장미원'

노적봉 폭포를 지나 공원 안쪽으로 들어오면 위치한 장미원에는 전 세계 장미 70여 종이 심어져 있습니다. 안산시의 시화 장미, 꽃말은 '애정', '사랑의 사자', '행복한 사랑'입니다. 장미의 계절 6월, 성포동 노적봉공원에서는 매년 장미축제가 열리는데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아쉬운 시민을 위해 준비한 예쁜 장미사진, 함께 보러 가실까요?

• 이금순 SNS시민기자



지역주민 위한 동네 서점 '토닥토닥 랜챱아'

단원구 초치동에 위치한 책방 '토닥토닥 랜챱아'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단체 '더 좋은 공동체'에서 운영합니다. 새 책 뿐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의 중고서적도 판매하고, 커피 또는 차를 마시며 주민들이 기증한 책도 무료로 읽을 수 있습니다. 택배 배송비 지원, 지역서점 바로대출, 동아리방 대여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전지환 SNS시민기자



스타셰프와 함께 한 Well-made 도시락 나눔

지난 6월18일, 안산시청 구내식당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락 나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최현석, 미카엘 셰프님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점심 도시락 전달을 위해 새벽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바쁜 와중에도 따뜻한 나눔을 위해 웃으며 즐겁게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오세빈 학생기자



랜선타고 팔도미식! 아삭아삭, 안산 열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경제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정부와 네이버가 함께 준비한 '랜선타고 팔도미식' 기획전. 경기도에서는 자랑스러운 안산팍의 열무가 대표로 선정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안산팍 열무는 전국 454개 농수특산물 중 6개 주력 상품 중 한 품목으로 소개되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7월 15일까지 판매되는 열무! 열무김치 담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 선경미 학생기자



상록구 늘 푸르른(常祿) 상록구에는 일동, 이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2·3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반월동, 안산동 등 총 13개 동이 있다. 파릇파릇 우리동네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사동

사람이 머물고 이야기가 머무는 곳, 사동 커뮤니티 공간 1°C



사람과 이야기, 기록을 더하는 모두가 주인인 공간 '1°C'가 사동에 문을 열었다. 마을역사박물관이자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동 주민과 안산지역 역사교사들이 모여 만든 곳이다. 서로가 가진 1°C의 온기를 모아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1°C는 다양한 개성을 가진 모임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한다. 현재 사동지역사모임과 99°C 청년 모임, 사동아빠모임(금사빠), 모아재(안산역사교사모임) 등이 강좌를 열거나 동아리 모임을 가지면서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마을역사박물관이기도 한 1°C에서는 사람과 이야기, 역사를 주제로 한 다양한 활동도 펼친다. 신대광 역사교사가 자신이 소장한 크고 작은 유물들을 전시해 방문객이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하는 '만질 수 있는 마을박물관'을 운영한다. 이야기로 전해지는 지역의 역사와 생활사 등을 만날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와 마을 역사를 기록하는 아카이빙(archiving·컴퓨터 시스템에서 기록 보관소 내에 파일을 적재하고 관리함) 작업도 이뤄진다. 개인이 소장한 옛 사진과 이야기를 수집하며, 과거와 현재의 기

역에 숨을 불어넣는 기록 및 전시 작업을 매년 주제를 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그 첫 번째 작업으로 옛 사리포구의 이야기와 기록들을 수집, 정리해 자료집도 제작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마을박물관 큐레이터 양성교육', '아카이빙 기록교육' 등의 강좌를 열며, 일요일살롱, 동화모임 등 책과 인문학을 주제로 한 소규모 모임 활동도 꾸준히 이어질 예정이다.

1°C에서 운영하는 '만질 수 있는 마을박물관'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 운영된다. 공간 대여를 원하는 동아리의 경우 1°C 페이스북 페이지(@oneplus992020)에 방문해 메시지로 신청할 수 있다.

위치: 안산시 상록구 네고지1길 14(사동)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daum.net

월피동

극단 '가우자리' 창작극 4작품, 유튜브로 보자!



월피동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 '경쟁력 있는 연극인 육성사업'의 극단 '가우자리'가 4종류의 창작극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보인다.

가우자리는 올해 초부터 진행된 코로나19 사태와 비

슷한 시기에 활동을 시작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공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꾸준히 작업을 이어갔다. '경쟁력 있는 연극인 육성사업'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가우자리에서는 움직임의 기초 트레이닝, 고전작품 감상과 토의, 개인 작품 집필 등의 활동을 통해 연극인 각자의 재능을 발견하고 능력을 발전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작품들은 가우자리 구성원들이 직접 집필한 것으로 관객과의 호흡이 중요한 단막극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관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비대면으로 공연을 진행한다. 안산문화예술의전

당 별무리극장을 대관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만들어진 작품은 김규남작 '면접', 김한비작 '하나의 길', 허진영작 '두 아들', 김동재작 '취중진담' 등 4개다.

김종숙 가우자리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예술인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19를 극복하려는 의지와 노력은 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가우자리 극단의 작품은 7월 중 가우자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국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문의: 월피동행정복지센터(031-481-5859)

안산동

"쌘지화단에서 아름다운 꽃 보며 즐기세요"



지난 6월 22일, 안산동 11개 유관단체 회원들이 쌘지공원 조성지를 가꾸기 위해 제초작업을 펼쳤다.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폭염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쌘지공원 조성지 잡초를 제거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산동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체육회,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상공인회, 생활안전협의회 등 11개 유관단체 회원 및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해 2.5톤 분량의 잡초를 제거했다.

쌘지공원(수암동 427-23 일원)은 올해 초 안산시 녹지과와 상록구 건설행정과의 협업으로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완충녹지의 공간을 재배치해 탄생시킨 명품공원으로 안산동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 주민은 "자주 지나다니는 보도육교 앞에 이런 화단이 생겨 종종 아이들과 함께 예쁜 꽃들을 구경한다"며 "이렇게 더운 날씨 속에도 애써주시는 분들이 계시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도원중 안산동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체 회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제초 작업에 참여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안산동 쌘지공원 조성지를 통해 보람을 느낀다. 더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안산동행정복지센터(031-481-5511)

단원구

조선시대 대표 화가 단원 김홍도를 기리는 단원구에는 와동,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초지동, 선부1·2·3동, 대부동 등 총 12개 동이 있다. 따뜻한 이웃 우리동네의 소식이 궁금하다.

고잔동

함께 가꾼 마을정원, '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 동상 수상



고잔동 마을정원이 지난 6월 산림청이 주최한 '2020 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정원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청에

서 진행한 공모전이다. 고잔동 마을정원은 '내가(우리가) 가꾼 아름다운 정원'을 주제로 한 공모전에 참가해 '우리정원' 분야에서 이 같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잔동 마을정원은 2017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통해 단원중학교에서 고잔동행정복지센터에 이르는 거리에 조성됐다. 죽은 풀이 가득하고 사람이 발을 딛을 수도 없었던 공간이 마을정원으로 탈바꿈하면서 고잔동 주민들의 소중한 산책로이자 마을쉼터로 사랑받고 있다. 이곳은 마을정원을 필요로 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방문할 정도로 마을정원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고잔동은 마을정원이 조성되기 이전인 2016년부터 주민 10명이 모여 '일촌가드너'로 활동하면서 마

을정원을 가꿔왔다. 이 같은 경험은 이번 수상에서도 큰 힘이 됐다.

황희숙 고잔동주민자치위원장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잡초제거와 물주기 등 묵묵히 일해 온 일촌가드너들의 활동이 없었다면 이번 수상의 영광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잔동 마을정원은 이번 수상으로 상장과 상금, 부상으로 아름다운정원을 인증한 동판을 받는다. 시상식과 전시회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열리는 '2020 대한민국 정원 산업 박람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의 : 고잔동행정복지센터(031-481-6732)
박미영 명예기자_uzuin70@naver.com

초지동

"코로나19로 지친 마음 초지하늘정원에서 힐링하세요!"



초지동행정복지센터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쉼터인 초지하늘정원을 새단장했다. 초지하늘정원은 지난 2016년에 초지동행정복지센

터 옥상을 주민들에게 쉼터로 제공하고자 조성된 후 마을정원 사업, 옥상캠프 등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주민들에게 조금 더 편안하고 여유롭게 쉴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늘정원에 핑크물리, 꽃잔디 등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하고 화단과 벤치, 조형물 등을 추가로 설치했다. 주민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된 하늘정원은 향후 주민자치센터

개강 후 수강생들의 연습공간과 동아리 모임 공간 등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초지동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초지하늘정원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주민들이 스스로없이 편안하게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재단장했다.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하늘정원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초지동행정복지센터(031-481-6822)

선부동

행복한 '나눔공간'에 사랑의 손길 이어져



선부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7년 4월부터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공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선부1동행정복지센터 1층에 위치한 나눔공간은 현재 코로나19로 지역사회 경제가 위축된 가운데도 이웃에게 나눔의 정을 전하는 손길이 활발해 지역에 입소문이 자자하다. 책, 장난감, 옷, 신발, 먹거리 등을 나눔공간에 남몰래 두고 가는 지역주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도움을 얻은 어려운 이웃의 감사 인사 또한 계속 전해져 훈훈한 이웃의 정이 살아 숨 쉬는 그야말로 '행복한 나눔공간'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김춘임 민간위원장은 "나눔공간을 채워주는 지역 내

많은 기부천사들 덕분에 선부1동이 살기 좋은 동네로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다"며 "기부천사들이 보내는 도움의 손길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태석 선부1동장은 "희망을 만드는 나눔공간을 통해 지역주민 누구나 손쉽게 기부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장이 이뤄진 것 같아 기쁘다"면서 "온정의 손길과 나눔의 실천이 코로나19로 처한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의 : 선부1동행정복지센터(031-481-6847)

물품 기부 또는 성금 모금에 관심이 있는 시민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 안산시 안전사회지원과 031-481-3190 | 저소득층 대상 | 안산시 복지정책과 031-481-3025 | 코로나19 관련·저소득층 대상 | 동 행정복지센터

안산문화예술의전당, 'Gallery A' 개관

동영상 온라인 전시에 이어 '예술인 지원 프로젝트' 선정 작가전 열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1층 공간에 소규모 전시관 'Gallery A'가 지난 6월 15일 개관했다.

안산문화재단은 안산에 부족한 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 공연장 내 유휴 공간을 전시장으로 탈바꿈시켰다. 이번 전시관 개관으로 안산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전시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민들도 극장에서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됐다.

Gallery A의 첫 전시로는 안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김현철 작가의 '녹우당의 기억展'이 열렸다. 전라남도 해남 덕음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녹우당'을 중심 주제로 조선 후기 화가인 공재 윤두서의 초상 임모(臨模)*작과 해남 일대를 배경으로 한 산수 작품이 동시에 전시되어 작가의 작품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김현철 작가는 1996년도부터 지금까지 23번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임모를 통한 철저한 전통화법 계승에 몰두해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녹우당의 기억展은 코로나19 여파로 현재 전시관은

이용할 수 없고 온라인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안산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동영상 온라인 전시를 열고 있다.

전시 담당자는 "Gallery A는 전문 미술관 성격보다는 생활동아리, 동호회 등의 작품 전시 위주로 꾸며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크고 작은 유휴 공간을 작가와 시민의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문화재단은 코로나19 긴급 예술지원 프로젝트 '일상에 예술 더하기 Life+art'로 선정된 12팀의 온라인 전시를 열고 있다. 안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ansanart.com)를 통해 오는 12월 27일까지 진행된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Gallery A에서 전시를 열 예정이다.

*임모(臨模): '임'은 원작을 대조하는 것을 가리키고, '모'는 투명한 종이를 사용해 윤곽을 본뜨는 것을 말한다. 넓게는 원작을 보면서 그 필법에 따라 충실히 베끼는 것을 의미한다.

이선희 명예기자_jamyou70@hanmail.net



안산어촌민속박물관 3D 홀로그램 설치



안산도시공사는 안산어촌민속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신 전시기법인 3D 홀로그램을 박물관 내 수족관 상부에 설치했다.

3D 홀로그램을 통해 소개할 주요 콘텐츠는 제1전시실의 갯벌 생태계, 제2전시실의 어민들의 삶의 모습 등과 러일전쟁의 도화선이 된 풍도 해전 전개 과정 및 관련 유물 등이다.

어촌민속박물관은 앞서 2019년 5월 자체 개발한 증강현실(AR) 기법을 활용, 관람객이 작은 모니터에서 망둥어 등 갯벌생물을 색칠하면 1층 대형 벽면갯벌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갯벌테마 컬러링프로그램'을 설치해 관람객의 큰 인기를 끌었다.

심수정 안산도시공사 박물관 팀장은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보는 전시'에서 '즐거는 전시'로 변화를 모색해왔다"며 "향후 3D 홀로그램을 통해 관람객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첨단 전시기법 도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촌민속박물관은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임시 휴관 중이며 코로나 안정 이후 재개관 시 3D 홀로그램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문의: 안산어촌민속박물관(032-886-0126)

'단원미술제 선정 작가 수상자 14인展'

역대 수상작부터 작가들의 최근작까지 모두 감상할 수 있는 전시

안산문화재단은 오는 8월 말까지 '단원미술제 선정 작가 수상자 14인展'의 온라인 전시를 연다. 단원미술제 선정 작가 수상자 14인展은 단원미술제 미술 부문이 '작품공모'에서 '작가공모제'로 바뀐 제17회(2015년)부터 제21회(2019년)까지의 단원미술제 선정 작가와 단원미술상 수상 작가 총 14인의 작품을 한 자리에 만날 수 있는 기획전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단원미술제의 역대 수상작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작가별 최근 작업까지 함께 전시해 작가들의 변화된 예술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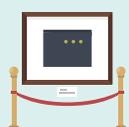
참여 작가는 2019년 대상 수상자인 김수연 작가와 우수상 수상자 쉰지 작가를 포함한 총 14명이며 회화와 조각, 설치 등 수상작 14점과 최근작 50여 점을 다

양하게 전시한다.

단원미술관은 잠재적인 능력을 갖춘 작가들을 발굴하고 선정 작가 지원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작가의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돕고 있다. 2015년부터는 작가 공모로 공모 방식을 바꿔 선정 작가를 위한 해외 워크숍을 진행 중이다. 또 선정 작가에게 아트 페어 참가 기회를 제공해 미술시장 진입 기회도 마련하고 있다.

단원미술관은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휴관 중이며, 매년 10월 개최하는 단원미술제를 올해 전면 취소했다.

이번 온라인 전시는 단원미술관 홈페이지와 안산문화재단 유튜브를 통해 관람할 수 있다.



◇ 전시기간

2020. 6. 30.(화) ~ 2020. 8. 30.(일)

※코로나 19 방역 조치 시행에 따라 미술관은 잠정 휴관이나, 단원미술관 홈페이지와 안산문화재단 유튜브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전시장소: 단원미술관 1관

◇ 전시부문: 평면, 조각, 설치 등

◇ 관람료: 무료

◇ 문의: 단원미술관(031-481-0505)

◇ 참여작가: 단원미술제 선정작가(수상작가)

총 14인

- 2015년: 김재호(대상/조각) 구교수(미술상/회화), 성민우(미술상/회화)
- 2016년: 제미영(대상/회화) 윤석원(미술상/회화), 박기훈(미술상/회화)
- 2017년: 김선혁(대상/조각) 김혜정(미술상/회화), 박지영(미술상/조각)
- 2018년: 정지현(대상/회화) 이 시(미술상/조각), 홍정우(미술상/회화)
- 2019년: 김수연(대상/회화), 쉰 지(우수상/회화)



안산시의회 의원 9명이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와 경기도 중부권 9개 시의회 의장협의회가 각각 주관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에는 김정택, 주미희, 윤태천, 김동수, 윤석진, 김태희 의원이, 경기도 중부권 9개 시의회 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에는 유재수, 이경애, 이진분 의원이 각각 선정됐다.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 없이 의정활동을 펼쳐 온 이들의 성과를 짚어본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6명 선정

김정택 의원은 제8대 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재임하며 원내 교섭단체를 아우르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 돋보였다. 아울러 3선 의원의 경험을 살려 사동 마로니에공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개선과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건의하는 등의 민생을 살피는 의정활동에 더해 지난 제256회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인사 문제를 비롯한 시정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을 보여준 점 등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미희 의원은 제8대 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위원장으로서 소속 상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온 점이 두드러진다. 재선 의원인 주미희 의원은 '안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도 대표 발의하면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자 운전의 대안을 제시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의정활동의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줬으며, 특별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윤태천 의원의 의정활동 우수의원 선정도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윤태천 의원은 농업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 신뢰 확보에 기여한 것은 물론 의원연구단체 '사통팔달 안산을 위한 연구모임' 및 '미래의 빛'에서도 교통과 노인복지 등의 정책 연구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동수 의원은 3선 의원과 제7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을 맡아 활약한 경험을 토대로 의회 내에서 활발한 입법활동을 벌이면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해 다문화 도시 안산의 국제 교류 역량을 증진시키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 초지동 및 고잔동의 지역 주택가의 침수 위험성을 직접 확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윤석진 의원은 지난 제7대 의회에 입성한 뒤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등을 거쳐 8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성실한 의정활동과 대 시민 정책 활동을 벌였다. 현재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안산시 주차장 조례 개정조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해 공업지역 공영유료주차장 이용 활성화와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꾀했다. 의원연구단체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연구모임'을 통해 도시·환경 분야 관련 전문적인 역량을 선보이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제8대 의회에서 정치 이력을 시작한 젊은 정치인으로 신인답지 않은 노련함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두각을 드러냈다. 지난 2년간 3개 의원연구단체에서 정책 연구를 진행해 왔고, '안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포함 총 5건의 조례를 발의한 것을 비롯해 현재는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특위' 위원장을 맡아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에 매진하고 있다.



경기도 중부권 9개 시의회 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3명 선정

유재수 의원(공약실천 분야 우수의원 선정)은 지역 현안을 관통하는 주제의 결의안을 발의해 시민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등의 발 빠른 대응과 실천력이 우수 의원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과 '안산도시공사 공공택지 조성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 등을 연이어 발의해 의회와 안산시민들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렸다. 지난 제25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의원연구단체 '우리는 모두 꽃이다' 소속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이경애 의원(의정활동 분야 우수의원 선정)은 발군의 실력을 보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의회 입성 전 보육 전문가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아동·청소년 복지 문제에 천착해 의정활동을 펼쳤다. 사회적 약자 층을 포함한 지역 사회 각계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안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등 5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이진분 의원(지역경제활성화 분야 우수의원 선정)은 비례대표 의원으로 지역구를 넘나드는 전방위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안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지역 노인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수립에 기여했다. 의원연구단체 '우리는 모두 꽃이다'에 속해 장애인 생애주기별 욕구 파악 및 장애인 복지 증진 관련한 정책 연구로 동분서주했다.

내가 안산을 사랑하는 이유



Stay Strong, Stay Safe. Together!

안산시민 코로나19 함께 극복한 순간들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하며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응원 한 마디,
2주 동안 외출하지 못하는 자가격리자에게 건네는 위로의 한 마디.
더운 여름, 산책을 하면서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벗지 않는 마스크.
친구 보고싶은 마음 꼭꼭 눌러 담아 미루는 약속들.
아름다운 말과 행동이 모여 힘든 시기를 씩씩하게 극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힘내세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산시

안산시가 최고입니다

5월은 한국에서 가정의 달입니다. 안산시에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기분이 좋은 소식이 찾아온 5월. 바로 안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외국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 덕분에 저도 다운 카드를 받았습니니다. 충전 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바로 동네 슈퍼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그날, 우리 집 밥상이 달라졌습니다. 다운 카드 덕분에 슈퍼에서 반찬거리를 많이 사와서 신랑이랑 아들에게 “와~ 우리 집 오랜만에 진수성찬이다!”는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요리를 잘 못 하는 제가 처음으로 집에서 이런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행복한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안산시에서 외국인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것 같습니다. 역시 다문화선진도시 안산입니다. 안산시에서 살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이런 힘든 시기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이 최고입니다!

· 박영숙(신길동)

안산시 '덕분에' 살맛납니다!

다운 카드를 받던 날, 카드를 들고 한달음에 집 앞 슈퍼에 뛰어갔다.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에게는 고기를, 엄마가 살던 고향의 사탕을 먹고 싶다는 우리아이에게는 사탕을,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올해 설 명절에 고향 방문을 못한 나도 오랜만에 고향의 간식을 여러 가지 사들고 집으로 향했다. 우리 가족은 저녁식사를 하며 안산에 정착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안산에 사는 외국인으로써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고향에 사는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도 안산시의 이러한 정책에 감탄을 표하였다. 지금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지만 같은 고향에서 온 많은 친구들도 안산시의 이러한 정책에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안산시에 사는 외국인 주민으로서 앞으로 더 열심히 안산시를 위해 일할 것을 다짐하며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안산시에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라면 코로나19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WANG HAI JUAN(수암동)

2주 동안의 고마운 기억

4월 초에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하고 자가격리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입국자의 2주 자가격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되어 정확한 정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불안감이 큰 상태로 입국했구요. 입국하고 바로 다음날 아침, 어디 아프신 곳 없는지, 몸 상태는 괜찮은지 친절하게 전화를 주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박스도 하나 도착해 열어봤더니 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등 당장 구하기 힘든 물건들이 많이 들어있었는데요. 이때까지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보건소에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나라에서 다 관리하고 계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몸이 안 좋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담당자에게 전화를 달라고 하시는 말에 불안감이 싹~ 없어졌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일주일 후 부터는 음식과 반찬거리도 보내주셨는데 문 앞에서 확인했을 때 깜짝 놀랐죠. 너무 크고 무거워요. 게다가 박스 안에 들어있었던 라면 맛이 매운 맛이 아니라 순한 맛이었는데 SNS에 지원받은 물품 사진 올리니까 “외국인한테 매울까봐 최고의 배려”라고 다들 칭찬 하시더라고요 ㅎㅎ

라면만이 아니라 쌀, 김, 참치 등, 33층까지 택배기사님도 아닌 보건소에서

직접 전달하러 와주시다니... 격리중이라 만나서 감사인사도 못 드리는 게 너무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코로나19가 퍼져서 재택근무를 하느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2주 동안은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아무도 못 만나서 입맛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매일 거의 똑같은 시간에 전화로 몸 상태 확인해주시고 코로나 검사결과가 음성이었을 땐 같이 다행이라고 웃어주시고. 덕분에 2주간의 자가격리를 잘 버티고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산시에 이사온 지 얼마 안되는 외국인한테도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응대해주시고 신경써주시는걸 느껴서 너무나도 감사했던 2주였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안산시에서 남편과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가 진정되길 바랍니다.

· yamamoto natsumi (초지동)





예쁜 두 아이 아빠의 이야기



지난 6월, 둘째가 태어나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임신한 아내, 21개월 된 첫째와 함께 올해 초 떠날 태교여행 계획을 세우던 와중에 터져버린 코로나19. 밖에 나가 놀기 좋아하는 첫째와 아내는 한순간에 고위험군에 속해



바깥 외출이 힘들어졌습니다.

점점 몸이 무거워져 힘든 아내는 온종일 집안에서 첫째를 보느라 지쳐갔고 어쩌다 한 번씩 외출할 때 필요한 마스크까지 구입하기 힘든 찰나, 안산시에서 임신부들에게 마스크지원을 해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 구하기도 힘든 상황에 5장이나! 그 덕에 아내는 한동안 마스크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에 40만원씩 지급해 준 아동돌봄쿠폰. 바로 지역서점에서 아이와 재미있게 읽을 책 전집을 구매했습니다. 조금씩 책 읽는데 관심이 트인 첫째 아이는 엄마와 함께 책 읽는 시간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부와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섬세하게 신경써주는 안산시가 있어 든든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길 바라며, 파이팅!!

· 김낙현(초지동)

Pride in Ansan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고려인 4세인 허크리스티나입니다. 원곡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 선부동에서 부모님, 남동생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 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학교생활과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현재 저희 부모님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SNS를 통해 외국인도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 가족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을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와 남동생까지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안산시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 우리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요즘,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이 가뭄에 내리는 단비 같은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산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안산시에 산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민으로서 다 함께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 허크리스티나(선부동)

자랑스러운 나의 제2의 고향, 안산시

올해로 내가 안산에 정착하게 된지 약 19년이 되어간다. 처음에 안산에 오게 된 건 안산에 공단이 있어 일자리 찾기가 비교적 쉽고, 안산역을 통하는 지하철과 주요 버스노선의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안산에서 반쪽을 만나고 원곡동에 집도 사고 아이도 키우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

하지만 새해에 접어들고 나서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에도 퍼지기 시작했고 안산시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안산시에 사는 외국인들한테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전국 최초로 안산시가 외국인주민에게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 그리하여 나도 안산 지역화폐인 다운 카드를 받게 됐고, 더 기쁜 것은 외국국적동포인 친정어머니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큼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쁨이 두 배, 행복도 두 배가 되었다.

생활안정지원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나는 무릎 관절이 아파서 고생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가까운 한의원을 찾았다. 한의원에서 어머니는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았다. 진료가 끝나고 어머니는 자신이 다운 카드로 결제를 하시면서 연신 안산시의 이러한 정책에 고마움을 표하셨다. 꼭 마치 용돈 받은 그런 기분이라고 하셨다. 이런 면에서 다운 카드는 어르신들한테는 효자노릇을 한 것 같다.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외국인주민들에게 '차별'없이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해 준 안산시에게 정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역시 자랑스러운 나의 제2의 고향 안산시다!

· 김명자(원곡동)

시민과 상생하는 안산시, 감사합니다!

저는 '코로나19 극복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현재 고잔동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관련된 정책 및 복지업무를 보조 하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만들 때 빠른 방문할 일이 없었던 행정복지센터였기 때문에 첫 출근 전 무지함에서 비롯된 여러 걱정이 앞섰습니다.



곧 '지원금 정책이 시행 예정이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뿐만 아니라 방역물품대여, 한시생활지원금, 다자녀 가구와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마스크 배부까지... 힘든 시민들을 위해 안산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점에서 저 또한 코로나19 극복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며 가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낸 거 같아서 참 다행스러웠는데요.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큰돈은 아니지만 용돈도 드리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음에 보람했습니다. 5월 초 쇠도하는 문의 전화 중 간혹 지원금을 기부하고 싶다는 분과, 받은 지원금이 요긴하게 쓰인다고 고마워하시던 어르신, 고생 많으시다는 시민분의 격려 말씀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이 온기가 구슬땀 흘리시는 공무원분들께도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 하은서(초지동)



<나비잠: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코너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 집니다.

'엄마'와 '아빠'의 호칭을 선물해준 나의 천사

아기이름: 전세아(여) 출생년월: 2020년 2월

안녕? 아가야! 엄마가 너의 태명을 '얌얌'이라
지은 이유는 잘 먹고 잘 자라길 바래서야.

엄마가 진료를 다녀온 날은 하루 내내 괜시리
웃음이 나고 행복했다. 2020년 2월 10일 긴
시간의 싸움 끝에 너를 만나게 되었다. 체중
2.62kg. 36주부터 체중이 늘지 않아 내심 걱정했
는데 우렁찬 울음소리를 들으며 내 품에 안기는
순간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이제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진통보다 더 큰 고통이 찾아올
줄은 예상하지도 못했다. 돌처럼 딱딱해진 양
쪽 가슴을 부여잡고 얼마나 울었던지.. 진통의 아
픔과 거의 비슷한 고통과 그 뒤에 오는 산후 우울
증, 산후풍에 심신이 약해진거였어.

어느날 엄마는 외할머니에게 물었어. "엄마는
어떻게 우리를 4명이나 낳았어?" 그러면 외할머
니는 "아가가 나를 보며 방긋 웃으면 얼마나 예쁜
지 아니?" 라고 하셨어. 요새 너의 웃는 모습을 보

면 엄마는 행복하단다. 아가야 엄마도 이제 '엄마
의 마음'알 것 같아. 웅얼이만 하는 우리 아가에게
곧 '엄마'와 '아빠'라는 호칭을 들을 수 있겠지?

사랑해~♥

· 강보민(사동)



사랑스런 우리 아가를 소개합니다

아기이름: 김호연(여) 출생년월: 2020년 3월

작년 여름, 남편 출장을 따라 네덜란드의 아인
트호벤에서 머물 때 호연이가 찾아왔습니다. 그
래서 태명이 호벤이었구요. 태어나서는 '호연지
기'의 뜻처럼 세상에 크고 넓은 영향력을 미치라
는 의미로 호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호벤이가 호연이가 된지도 어느덧 백일을 앞두
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호연이는 요
즘 눈만 마주치면 씩긋씩긋 잘 웃어준답니다. 그
러면 그 웃음에 육아에 지친 마음이 눈 녹듯이 사
라져서 또 힘내서 호연이를 돌보게 되더라구요.
한단계 한단계 호연이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엄마
라는 이름으로 옆에서 지켜볼 수 있어서 날마다
기대가 되고 감사하답니다.

한 가지 많이 아쉬운 건 코로나19 여파로 봄에
태어나 여름이 될 때까지 푸릇푸릇한 꽃과 나무

들을 제대로 느껴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루 속
히 이 상황이 해결돼서 우리 아가들이 자유롭게
자연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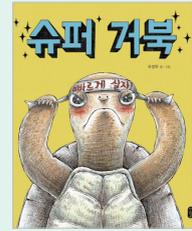
· 김지혜(고잔동)



책 읽는 안산 / 7월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지친 내 마음에 수분 충전』

아동



슈퍼거북

저자 유설화 / 출판사 책읽는곰

경주에서 토끼를 이긴 거북이는 정말 행복했을까?
'나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토끼
와 거북이>의 그 뒷이야기! 거북이는 거북이답게 토
끼는 토끼답게 나는 나답게! 끊임없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행복인지, 그렇다면 진짜 행복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청소년



고민해서 뭐 할 건데?

저자 김혜정 / 출판사 예림당

고민이 많은 걸 고민하지 마! 날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청소년들에게 고민이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행위이다. 치열한 고민은 나에게 닥친 장
애물을 헤쳐 나가는 방법을 찾아 주고, 성장해 나가
는 동력을 제공한다. 그렇기에 건강한 고민은 자라
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양분이 된다. 경계해야 할 것
은 지나친 고민이다.

성인



1cm 다이빙

저자 태수, 문정 / 출판사 피카

이 책은 행복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이야기다. 뭘 해야할지, 어떤 것이 즐거운 건지 모르
고 그저 버티고만 있는 사람들. 이 책을 통해 독자들
에게 묻는다. 혹시 너도 그저 참고만 산 것은 아닌
지. 그 작고 사소한 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충분히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독자 투고

아름다운 사람을 칭찬합니다

나는 매일 새벽 4시 출근해 늦게까지 소규모 실내 체력 단련장 운영하는 고단한 자영업자다. 그간 일에 빠져 최선을 다해 사느라 젊은 날 부터 꿈꾸던 여행 잊은 지 오래지만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옛 속담대로 이번 기회에 용기 내 여행을 나서기로 맘먹었다.

여행 떠나는 당일 새벽, 안산시외버스터미널에는 이른 시간부터 발열체크 하는 직원, 방역 요원, 넓은 대합실엔 나와 멀찍이 있는 관리자로 보이는 분이 전부였다. 승차권 키오스크(무인 판매대)에 목적지를 입력하니 웬걸? 첫 운행 6시10분.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도 똑같아서 살짝 당황하는데 좀 전에 본 관리자, 눈 깜짝할 사이 다가와 “도와 드릴까요?” 먼저 손 내민다. 자초지종 이야기하니 코로나19로 이용객이 줄어 판매대 화면에 나온 배차 운행시간이 맞단다. 다행히 비행기 출발시간이 넉넉해 안심하고 집에서 챙겨온 조간신문을 딱딱한 의자에 앉아 정독하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제야 아직 잠이 덜 깬 듯 피곤해 보이는 사람들, 캐리어 밀고 드문드문 나타난다. 새벽시간, 나이 많은 여행자들이 키오스크 앞에서 약속이나 한 듯 서성델 때마다 손 내밀어주는 친절한 그분. 천사처럼 발권을 도와주며 건네는 서비스 멘트가 적막한 대합실 공간에 고스란히 퍼지길 반복한다. 읽던 신문을 접고 그분의 동선을 따라 기분 좋게 시선이 따라간다. 젊은 사람들에게겐 키오스크 사용이 익숙한 일상이지만 나처럼 나이든 사람들에게겐 아직 불편한 기계로 필히 극복해야할 과제물이다.

손님 한 사람 한 사람 친절하고 정중하게 안내하는 능동적인 서비스! 손님이 없을 때에도 가만히 있을 틈 없이 구석구석 살피며 주변 쓰레기를 줍는 진정한 서비스맨이 나를 무한 감동시켰다. 안산시외버스터미널 근무자 정동철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명식(고잔동)



독자 투고

‘보이스 아이’를 실행해보다!



시정소식지를 매달 집으로 구독하는 시민이다. 이번 6월호부터 달라진 점이 눈에 띄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 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네모난 QR코드처럼 생긴 바코드. 표지의 설명을 읽어보니, 스마트 폰으로 코드를 스캔을 하면 글로 쓰인 소식지의 기사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으로 나온다는 설명이었다. 또한 눈이 침침한 어르신들과 한글에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가정도 소식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매년 변화가는 새로운 문명에 용기가 점점 약해져 가는 중년으로서, ‘이건 또 뭐지?’ 싶었지만 스마트폰을 들고 ‘보이스 아이’ 라는 앱 부터 설치했다. 처음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의 당혹감이 여지없이 또 찾아온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마다 사라지지 않는 불편한 느낌들이다. 요즘은 햄버거 가게에 가도 사람이 직접 주문 받는 것보다 기계로 주문을 넣고 계산까지 직접 해야 하니, 시간이 지체되면 뒷사람에게 영 민망함이다. 시대는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간다. 100세 시대, 인생을 더 지혜롭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씩 도전해보는 마음자세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안산톡톡을 한 페이지씩 넘겨 가면서 보이스아이 코드를 스캔을 해 보니 음성으로 읽어주고, 글씨 크기를 키워주고,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해주는 기능뿐 만 아니라 해당 기사를 다른 사람 스마트폰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안산톡톡을 통해서 또 하나의 기술을 습득해 나가니 새삼 감사하다는 생각과 소식지에 나오는 기사와 정보를 꼼꼼히 읽으면 실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정소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이다.

· 김재범(성포동)



전문가 기고

우리는 모두 아동이었다



연일 이어지는 아동학대 범죄 보도는 우리를 분노케하고 좌절하게 한다.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치를 떨면서도 어떻게 그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여야 하는지를 몰라 먹먹해진다. 끔찍한 아동학대에 대하여 법은 너무나 멀리 있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으로 정하면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각종 처벌규정은 이러한 아동복지법의 정의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법 규정들을 보면서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는가.

위 규정들을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보아도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당하여 상처받고, 굶주리고, 심지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와 닿지 않는다. 아동과 청소년을 뭉뚱그려 둔 규정 때문에 특별히 보호해야 할 대상은 그 넓은 범위에서 희석되고 만다. 그렇다면 한 때 아동이었던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거나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할 수 있을까? 아동복지법 제26조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규정하면서, 신고의무자들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

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고의무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여 신고의무자이거나 아니거나 관계없이 아동학대 범죄를 신고한 경우에 신고자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런 조항들을 통하여 일반인들도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거나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할 방법이 있으니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동은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고, 어떤 아동도 학대를 통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없다.

훈육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는 결코 아이를 바르게 키우는 방법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아동이었으며, 가족과 사회의 사랑과 건전한 관심 속에 성장하여 건강한 성인이 되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한다.

· 김성천변호사



생생도시 안산 방송됐다!

OBS (6월 11일)
대한민국 환경대상 환경교육 본상 수상

한빛방송 (6월 17일)
수소시범도시 관련 기관들과 업무협약 체결

KBS (6월 22일)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KBS (6월 23일)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 특화기업 성장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안산시 소재 기업
- ◇접수기간: 2020.6.29. ~ 2020.7.6. 오후 3시까지
- ◇지원내용: 시험분석 및 인증, 판로개척 등 사업화 자금 지원
- ◇지원규모: 최대 5천만원 바우처 형식 지원
- ◇사업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innopolis.or.kr) 한양대학교 에리카 창업보육센터 (hbi.hanyang.ac.kr) 안산시청 홈페이지(ansan.go.kr)
- ◇신청방법: ericainnotown@hanyang.ac.kr 접수
- ◇신청문의: 안산시 산업진흥과(031-481-2855)

안산시 고충민원신청 안내

- ◇신청대상: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리를 침해받은 시민
- ◇신청방법
 - 방문상담(안산시청 제2별관 3층, 오전10시~오후5시)
 - 우편(단원구 화랑로 387, 시민옴부즈만 사무실)
 - 전화(031-481-2682) 및 팩스(031-481-3204)
- ◇민원처리기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처리 ※부득이한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워킹맘 정리수납 지원 사업 안내

- ※ 정리수납 서비스: 생활 속에서 비워야 할 물건, 공간을 선별하여 정리하고 알맞은 자리에 수납할 수 있도록 집안 정리정돈 및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 ◇지원대상: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관내 거주 워킹맘
- ◇지원내용: 워킹맘 가정에 정리수납 서비스 제공 (1일 8시간)
- ◇모집가구: 70가구
- ◇이용요금: 무료(재료비는 수혜 가정 부담)
- ◇신청문의: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070-4924-9000)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모집

- ◇신청대상: 중위소득 80% 이하의 관내 거주 임산부 및 만 66개월 미만의 빈혈·저체중·성장 부진 영유아
- ◇지원내용: 영양교육 및 영양소가 풍부한 보충식품 지원
- ◇신청문의: 상록수보건소(031-481-5968) 단원보건소(031-481-6479)

7월은 재산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기한 내 미신고·미납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7월의 독자 참여 퀴즈

〈안산특독〉에 담긴 이야기를 꼼꼼히 읽으신 후 정답을 찾아보세요.

Q 2019년 6월, 연구개발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안산사이언스밸리(ASV)와 시화멀티테크노밸리(시화MTV) 일원에 지정된 특구 모델은 다음 중 어느 곳일까요?

-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
- 청년친화형 선도 산업단지
- 강소연구개발 특구

Q ○○시범도시 안산시는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해 관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3만 명의 고용창출과 4조3천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 수소
- 풍력
- 조력

퀴즈 응모 방법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디지털 엽서로 연결됩니다. 정답을 찾아 제출해주세요. 응모자 중 20명을 선정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무작위 추첨 후 개별 문자 발송 (3개월 이내 중복 당첨 불가)

응모기간: 7월 28일까지 6월 호 정답: ①, ③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을 지켜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주요 원인은 불법 주·정차입니다. 평일 오전 8시 ~ 오후 8시 사이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다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촬영 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해주세요. 8월 3일부터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됩니다.

안산시 시정소식지는 무료 구독이 가능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구독·주소변경 신청

메일 ansannews@korea.kr
전화 031-481-2042

안산시 시정소식지에서는 시민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모집합니다.

※ 개인의 연락처, 주소 및 글과 관련된 사진을 함께 메일(ansannews@korea.kr)로 보내주세요.
※ 시민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이 채택 된 경우 소정의 원고료(5만원 이상)는 다운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안산시에 바란다

주제: 안산시가 고쳤으면 하는 불편사항 또는 도입했으면 하는 정책을 제안해주세요.

분량: A4용지 절반, 관련 사진

독자투고 및 전문가 칼럼

주제: 생활담(자유주제) 특색있는 안산시 이야기 법률상식 / 미담(칭찬) 사례

분량: A4용지 2/3 이상, 관련 사진

나비잠

주제: 생후~24개월 전후 아이를 둔 가정의 출산·육아 이야기

분량: A4용지 절반, 아기 사진 1장